東友會報
發行人 崔 載 九
編輯人 尹 天 泳
印刷人 金 東 立
發行所
서울特別市 中區 筆洞
3街26 東國大學校 內
東國大學校
同窓會
直通 ㉗8568
交換 ㉗8131~9
非賣品
우편대체구좌번호
525669번
本會는 同門相互間의 友誼增進과 母校發展에 기여키 위한 事業을 전개한다

車主여러분 안심하세요!
自動車綜合保險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26) 3111~5

나의發展이 곧 東國發展

新入會員 1천여명 誕生

崔會長 "眞正한 母校愛" 당부

25日11時 運動場서 學位수여식 擧行

首席卒業 曺明心양 등 표창

東國人家族 1천여명이 새로 탄생된다。國家와 民族의 새役軍으로、東國의永遠한 主人으로 希望찬 出帆을하는 學士 8백71명、3個大學院 碩士1백14명、博士2명、名譽博士2명=이들에게 영예의 學位를 수여하는 1977학년도 學位수여식이 25日 오전11시부터 母校大運動場에서 거행된다。

이날 學位수여식은 모교 李瑄根총장、本會 崔載九회장을 비롯한 財團·宗團관계人士와 內外貴賓이 참석한가운데 三師依禮의 주악으로 開式되어 學位수여、總長式辭、同窓會長 祝辭등이 있게된다。

이날 崔載九회장은 祝辭를 통해『新入會員으로 入會하게됨을 眞心으로 환영한다。眞正한 母校愛와 同門愛는 지금부터 발로되는 것』이라고 말하고、이어『후배여러분은 어떠한 變化나 逆境을 克服、國家와 民族의 자랑스런 棟樑으로 서 自强하는 東國人이 되어줄것을 기대한다』고 격려하게 된다。

이날 상장수여식에서는 全校首席 曺明心(印哲·平均 91·82點) 양을 비롯한 各單大別 首席卒業者 7名이 總長賞을 받게된다。

◇單大別 首席卒業者
▲佛敎大=曺明心(印哲)
▲文理大=이화영(統計)▲法政大=배승수(法學)▲經商大=박상철(經營)▲農林大=어연호(林學)▲工科大=김도영(工經)▲師範大=김남인(社敎)。

이어 國徒護國團 前師團長 魚演浩(林學)군을 비롯한 同간부들이 總長 공로표창을、또한 魚演浩·李明淑(國文·本會장학생)양이 동창회장 공로패를 각각 수여받게 된다。

◇功勞賞 受賞者
▲魚演浩(林學)▲허근창(經營)▲신상웅(敎敎)▲정윤한(印哲)▲한춘호(敎學)▲노창환(行政)▲이상일(經營)▲이영근(林學)▲최기승(電氣)▲강운섭(化工)▲이인용(科敎)▲김영미(社敎)▲문찬식(化工)▲곽대흥(警行)▲김금룡(國文)▲박해석(體敎)▲이언(林學)▲전홍기(體敎)▲이윤호(警行)▲안명숙(家敎)▲정상경(佛敎)

◇同窓會長 功勞賞
▲魚演浩(林學)▲李明淑(國文)

이날 博士學位는 文學博士에 金時泰(濟州大교수)、理學博士에 朴榮基(延世大교수)등이 영예의 學位를 받게된다。

또한 이날 學位授與式에는 李耘虛(母校 譯經院長)스님과 金容民(建國大學院) 教育및 學術分野에 공헌한 업적으로 名譽 哲學博士 學位가 수여된다。

※博士學位授與者 略歷
◇金時泰(文學博士·濟州大敎授)
▲學位論文=「韓國프로文學批評硏究」—1920~1930年代를 中心 ▲1957~63 母校國文科 ▲66~濟州大 助敎授(現)
◇朴榮基(理學博士·延世大文學科敎授)
▲學位論文=「Note on the Laplace and Fourier Transformation of the Anlgtic Functions in the half complex plaoe」▲74~77 母校博士課程 ▲62~延大敎授(現)

仁川支部 新年任員회의

척사대회·幸運券 추첨

仁川支部(회장=孟은재) 新年 理事會겸 交禮會가지난1月20日 눈보라치는 오후6시、30여명의 任員이 참석한 가운데 仁川시내 금화식당에서 화기애애하게베풀어졌다。

이날 崔會長은 人事에서『새해를 맞아 同門여러분의 萬福을 기원한다。금년에도 변함없는 友情과 聲援으로써 우리의 發展이 東國發展의 초석이되고 또한 東國의 발전이 곧 우리의發展이 되도록 마음과 힘을 합쳐 나가자』고강조했다。

이날 賀禮式은 參席한 任員·幹部모두가 相互健勝과 幸運을 빌어주는 相見禮에 이어 카데일에 둘어가 서로의 안부를 주고 받는등한층 和氣가 넘쳐났다。

이날 참석任員들은 또한『永久不變同窓會 古成長 東國人이라는 本會 케치프레이즈를재확인하고 自體基金적립을위한 永久會費制채택등을결의、本會발전에 적극성원할것을 다짐했다。

(관계記事 3面)



各級任員 신년交禮會 盛況

〃 〃 〃 〃 〃 〃 〃 〃 〃 〃 〃 〃

「本會와母校발전에기여」 席參명백1

本會의 理事·單位東友會會長團·東友會報 편집위원등 各級任員과 母校幹部 연석 新年交禮會가 지난 1月30日(月) 오후6시30분 市內外交俱樂部에서 盛況裡에 열렸다。

戊午年을 맞아 東國人 相互間의 友誼增進과 母校발전에 熱과 誠을 다할것을 다짐한 이날 모임은 崔載九동창회장을 비롯 金道服 黃明秀 朴恩會 朴敬熙부회장등 會長團과 1백여명의任員및 모교幹部가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하게 베풀어졌다。

이날 崔會長은 人事에서『새해를 맞아 同門여러분의 萬福을 기원한다。금년에도 변함없는 友情과 聲援으로써 우리의 發展이 東國發展의 초석이되고 또한 東國의 발전이 곧 우리의發展이 되도록 마음과 힘을 합쳐 나가자』고강조했다。

이날 賀禮式은 參席한 任員·幹部모두가 相互健勝과 幸運을 빌어주는 相見禮에 이어 카데일에 둘어가 서로의 안부를 주고 받는등한층 和氣가 넘쳐났다。

이날 참석任員들은 또한『永久不變同窓會 古成長 東國人이라는 本會 케치프레이즈를재확인하고 自體基金적립을위한 永久會費制채택등을결의、本會발전에 적극성원할것을 다짐했다。

(관계記事 3面)

原州지회 和睦會

30명참석 新入會員환영도

原州東友會(회장=金在玉) 新年 和睦會가 錢六洲(67 식공·원주문화방송 PD) 간사장의 사회로 會員30여명이 參席한 가운데 지난 1月20日 市內 미락식당에서 베풀어져 會員상호간의 友誼증진과 新入會員환영도 겸토했다。

이날 모임은 특히 原州인근인 原城·橫城지역의동문들로 참석하여 한층 자리가 빛났으며、신입회원인 金益相(원주지청檢事) 김학규(醫師) 동문의 환영파티를 겸하기도 했다。

회총 발기 會東友區地室蠶

25日, 會員 3백여명파악

蠶室地區東友會 창립총회가 2月25日 오후5시 잠실 단지내 동호정에서열린다。

蠶室지구의 아파트團地조성으로 급격히 증가한동문수는 3백여명에 이르고 있는데、尹天泳(65農·本會사무국장) 全典男(67警行·아세아不動産) 동문등이 발기하고 있다。

原州東友會(회장=金在玉) 新年 和睦會가 錢六洲(67 식공·원주문화방송 PD) 간사장의 사회로 會員30여명이 參席한 가운데 지난 1月20日 市內 미락식당에서 베풀어져 會員상호간의 友誼증진과 新入會員환영도 겸토했다。

이날 모임은 특히 原州인근인 原城·橫城지역의동문들로 참석하여 한층 자리가 빛났으며、신입회원인 金益相(원주지청檢事) 김학규(醫師) 동문의 환영파티를 겸하기도 했다。

이날모임은 任員간의 相見禮를 가짐다음 同會活動 번창소식과 本部同窓會공로패를받은 劉基棟간사의 포상축하가 있었으며 이어78年 정기총회개최를 회장단에 일임하는 문제와 慶弔時에 상호협조를 강화하는것등을 결의했다。

이날 모임은 척사(윷놀이) 大會、파티및 행운권추첨、노래자랑등으로 다채롭게 엮어졌는데 행운권추첨 1등상은 김성호동문이 차지했고、척사대회 우승은조병호·김정길同門組가 차지했다。

독히했다。

祝 慶 東友會報의 무궁한 發展을 기원합니다

韓國反共聯盟道峰支部長 敬熙 商社
社長 朴 敬 熙

(주)대진音響
代表理事 崔 泰 東

한일물산(株)
代表理事 文 弘 燮

大韓中外製藥(株)
代表理事 李 宗 鎬

三宇實業(株)
代表理事 金 成 浩

民主共和黨青年分科委員會副委員長
중립전기공업(주)
상무이사 金 榮 龜

新民黨中央常任委員
龍亞産業(주)
代表理事 鄭 奎 完

泰昌興業(株)
代表理事 崔 春 芝

利川家電(株)
代表理事 徐 昌 河

崔載九 동창회장 祝辭

親愛하는 卒業生 여러분!

오늘 傳統깊은 學問의 殿堂 「東國」에서 그동안 刻苦勉勵의 보람으로 學士, 碩士, 博士의 學位를 받으시는 여러분을 本人은 東國大學校 우리 五萬同門을 代表하여 衷心으로 祝賀하고, 또한 歡迎해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卒業生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까지 不撤晝夜 勞苦를 아끼지 않으신 母校 總長 李瑄根 박사를 비롯한 敎授 職員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敬意를 表하고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卒業生 여러분!

먼저 여러분은 母校에在學하던 數年동안 校內外, 國內外의 격심한 變化와 여러가지 어려웠던 熱風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젊음의 힘찬 活力을 헛되이 消費하지않고 希望과 용기로 自己成長에 정진하여, 이제는 어떠한 難關에도 굴함이 없이 能히 이겨내고, 항상 새로운 未來를 開拓해 나갈 수 있는 그 底力을 마음껏 發揮할 때를맞은 것입니다.


◇崔 載 九 회장

이에 本人은 이나라의 새 役軍으로 希望찬 社會에의 첫 出帆을 하게되는 여러분의 洋洋한 前進에 無限한 祝福을 보내면서 先輩로서 몇마리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希望과 의욕에 넘치는 卒業生 여러분은 무엇보다 民族的·國家的 大義에서 祖國繁榮의 來日을 設計한 歷史進行의 새로운 擔當者로서의 召命앞에 誠實히 임하고 奉仕하는 자세를 確立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南北分斷의 悲劇的 狀況속에서 國家의 保衛를 위해, 또한 나라의 發展을 위해 先峰的인 役割을 擔當해야하며, 또한 겪내를 이끄는 指導者的 位置에 서있는 「엘리트」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겠읍니다.

둘째, 이러한 責任과 使命을 지닌 여러분은 항상 自己를 反省하고, 自己가 서있는 나와, 家庭과 國家와 民族, 나아가서는 世界를 洞察하고 確固한 人生의 目標를 定立하여 보람찬 東國人, 自强하는 東國人에로의 부단한 自己更新을 계속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現代는 競爭의 時代로서, 競爭에서 이긴 者만이 存立할 수있는 엄연한 現實을 直視하여 불때, 여러분이 卒業을 한 이 순간에도 求道者的 立場에서 自慢보다는 겸허를 美德으로 어떠한 變化속에서도 항상 새로와 질수있고, 또한 어떠한 逆境도 克服해 나갈수 있는 創造的 意志를 더욱 살찌워야할 것입니다.

親愛하는 아우님 여러분!

셋째로 여러분은 이제 校門을 나선다고 해서 곧 東國과의 因緣이 끊기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은 우리 同窓會의 新入會員으로 入會하게 되는 것이며, 오히려 진정한 母校愛와 同門愛는 금부터 발로되는 것으로서 앞으로 더욱 기대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本人이나 그 많은 大學가운데에서 선택된 「東國」을 東國의 主人은 學生이지만, 그 永遠한 主人은 卒業生 여러분을 입니다.

大學이 가장 성숙된 人間形成에의 과정이라고 할때 여러분의 一生에 있어서 東國은 항상 永遠한 故鄕으로 새겨져 있을 것이며 설령 여러분의 國籍이 바뀐다해도 결코 校籍만은 바꿀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母校는 이제 中興과 도약의 기반이 다져져 同門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연대의식과 기대감에 부풀고 있읍니다.

校內外에 充滿한 母校의 發展意志와 同門間의 緊密한 紐帶意識을 더욱 높여 가는데 있어 오늘의 卒業生들이 짊어진 役割이 크다는 것을 銘心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박사학위를 받으시는 金時泰, 朴榮基박사님, 명예박사학위를 받으시는 모교 譯經院長 李瑄根박사님, 金容民박사님과 모든 卒業生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뜨거운 祝賀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卒業生 여러분의 將來에 부처님의 加護가 있기를 빌면서 이만 祝辭를 줄입니다.」

李瑄根 모교총장 式辭

親愛하는 卒業生 여러분!

오늘 學校法人 東國學院理事長 尹月下大禪師를 비롯한 이사여러분과 佛敎宗團의 高僧大德스님, 그리고 內外貴賓과 學父母여러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本人은 卒業生 여러분의 學位授與을 衷心으로 祝賀하는 바입니다.

졸업생여러분! 本人은 이제 훌륭한 役軍으로 성장한 여러분을 떠나보내면서 同僚敎職員들과 더불어 惜別의 정을 금할길 없읍니다. 특히 本人이 本校總長으로 就任하기 五個月前에 入學한 여러분을 그동안 보살피고 채찍질하며 길러온 總長으로서의 깊은 感慨와 기쁨을 누를 길이 없읍니다. 한편으로는 東國大學校의 建學理念인 부처님의 廣大無邊한 智慧와 慈悲의 具體를 여러분에게 좀더 철저하게 體得시키지 못한 自己의 心을 느끼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在學期間에는 國內外的인 격동과 시련에도 不拘하고 東國의 中興과 雄飛를 앞당기는 健實한 기반이 조성되었읍니다.


◇李 瑄 根 총장

특히 開校七〇周年紀念 三大事業인 高麗大藏經影印本刊行과 世界佛敎學術會議의 개최등 建學理念에 입각한 민족적이며, 世界的인 事業을 成功的으로 完遂했읍니다. 이는 오로지 배우면서 싸우는 護國學徒像을 定立한 여러분의 勉學風土가 이러한 大事業의 進行에 밑바탕이 되었음을 本人은 確信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在學中에는 각종 國家考試등에서 前例없는 榮光의 꽃다발을 母校에안겨준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本校는 교수·학생의 연구와 복지시설에 눈을 돌려 國內大學屈指의 컴퓨터와 理工系列의 最新機材를 導入하고 도서관을 정비하는가하면 福祉會館과 保健센터, 컴퓨터센터의 完工을 目前에두고 있읍니다. 뿐만아니라 第二校地의 宿願을 착실하게 풀어 가고있는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그러나 東國은 過去에 安住하지 않고 現實에 결코 만족하려 하지 않습니다. 韓國佛敎의 護國思想과 大學史의 빛나는 슬기를 오늘의 國家現實속에서 되살리고 創造와 開拓의 정신을 성실하게 追求하는 大學인 까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産業化의 急進的인 成長으로 重化學工業時代를 맞이 했읍니다. 따라서 지난 十年間의 經濟成長과 國力의 增大는 우리 民族을 後進國이라는 自嘲的인 固定觀念으로부터 脫皮하게 하였읍니다. 그러나 物質文明의 발달과정에서는 이미 先進諸國에서 提起되어온 物質萬能의 思考方式이 深化되고 精神文化의 輕視風潮가 만연하며 自己本位의 極端的인 利己主義가 膨脹하게됩니다. 物質과 精神의 關係는 언제나 均衡을 維持하는 수레의 두바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我獨尊」이라는 말은 人間의 尊嚴性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人間의 自我가 가장 重要한 것임을 佛敎에서 강조하는 慈悲思想은 바로 이러한 人間回復을 위한 實踐的德目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母校인 東國大學校는 七十有餘年의 歷史속에서 부처님의 慈悲精神을 內面化하고 實踐하는데 있는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순간, 이 나라의 最高知性으로 成長하기까지 學父母님의 精誠과 母校恩師의 指導, 그리고 國家社會의 加護를 받아 왔음을 銘心해야 하겠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두어깨에 家庭과 母校와 國家社會의 恩德에 報答해야할 莫重한 責務가 負荷되었음을 明白히 하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社會人으로서의 期待와 所望에 지혜롭게 副應하여 實利爲主의 利己보다는 自己犧牲的인 奉仕를, 나태나 挫折보다는 不退의 精進을, 權利보다는 自己義務를 誠實하게 完遂하여 國家發展과 人類平和建設의 永遠한 前進에 自身을 바치는일꾼이 되어줄것을 衷心으로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式典에서 名譽博士學位를 받으신 東國譯經院長 이시며 佛敎界의 高僧이신 李瑄根스님과 金容民敎授에게 祝賀의 뜻을 표하고 全體卒業生여러분의 앞날에 無限한 榮光이있기를 부처님께 祈願하는바입니다.

確固한 國家觀과 創造意志를 「東國」人이여 永遠한 나의 母校이어라

卒業生에게 주는글

權利앞서 自己義務 誠實하게

不退의精進으로人類平和에공헌

我獨尊」이라는 말은 人間의 尊嚴性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人間의 自我가 가장 重要한 것임을 佛敎에서 강조하는 慈悲思想은 바로 이러한 人間回復을 위한 實踐的德目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母校인 東國大學校는 七十有餘年의 歷史속에서 부처님의 慈悲精神을 內面化하고 實踐하는데 있는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순간, 이 나라의 最高知性으로 成長하기까지 學父母님의 精誠과 母校恩師의 指導, 그리고 國家社會의 加護를 받아 왔음을 銘心해야 하겠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두어깨에 家庭과 母校와 國家社會의 恩德에 報答해야할 莫重한 責務가 負荷되었음을 明白히 하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社會人으로서의 期待와 所望에 지혜롭게 副應하여 實利爲主의 利己보다는 自己犧牲的인 奉仕를, 나태나 挫折보다는 不退의 精進을, 權利보다는 自己義務를 誠實하게 完遂하여 國家發展과 人類平和建設의 永遠한 前進에 自身을 바치는일꾼이 되어줄것을 衷心으로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式典에서 名譽博士學位를 받으신 東國譯經院長 이시며 佛敎界의 高僧이신 李瑄根스님과 金容民敎授에게 祝賀의 뜻을 표하고 全體卒業生여러분의 앞날에 無限한 榮光이있기를 부처님께 祈願하는바입니다.

任員選任公告

行政大學院 理事會(77·11·18) 위임사항으로서 同理事會(78·1·27)의任員選任안준을 거쳐, 本行政大學院同門會 任員을 아래와 같이 公告하오니 本會發展을 위하여 倍前의 指導와 聲援을 바랍니다.

아 래

□指導委員

裵明甲(69·行院) 아주토건(주) 대표이사
尹鉉均(69·行院) 국제문제연구소
金宗勉(69·行院) 한국방공연맹사무총장
柳凡秀(70·行院) 事業(前국회의원)
金璨會(70·行院) 서울시기획관리관
黃慶石(71·行院) 선진기업(주) 대표이사

□名譽會長

安鎭烈(69·行院) 國會議員

□會長

朴敬熙(71·行院) 반공연맹도봉지부장·경희상사 사장

□副會長

石明洙(72·行院) 코스모스양장점·반도상사 대표
印丁一(72·行院) 온양국제관광호텔 사장
金照明(74·行院) 인창한의원 부사장
徐海善(76·行院) 흥해섬유공업사 대표
張燦周(77·行院) 명지대 학생주임

□監事

徐在河(72·行院) 선학원사무국장
朴洙鳳(75·行院) 청와대 경호실

□幹事

李俊(69·行院) 체신부비상계획관실
姜炯喆(70·行院) 국제승공협회
朴南圭(71·行院) 전국금융노조사무국장
柳秀明(72·行院) 한국생산성본부과장
朴瑾浩(73·行院) 東大행정대학원고시지도교수
金琮敏(74·行院) 한미유기화학(주) 자재부장
玄海天(75·行院) 중앙상사대표
吳相洛(75·行院) 소공지하상가26호 켄트양복점대표
朴敏浩(77·行院) 성결교신학교행정처장
申忠均(77·行院) 한강전자(주) 총무과장

□總務部長

玄海天(75·行院) 중앙상사대표

□涉外部長

金鐵龍(72·行院) 금성출판사감사부장

□事業部長

金琮敏(74·行院) 한미유기화학(주) 자재부장

□企劃部長

文承德(75·行院) 美1군단특별부사령부

□文化部長

金順媛(75·行院) 事業

一九七八年一月二十七日

東國大學校行政大學院同門會

會長 朴敬熙

自體基金 적립의 永久會費制 채택

任員會議

1人當 3萬원이상으로 地域單位에 현판달기 勸奬

年會費는 3천원씩

지난 1월30일(月) 外交俱樂部에서 열린 各級任員(理事·單位東友會長團·本報편집위원·모교간부)의 永久會費制 채택및 年會費引上件등을 滿場一致로 통과시켰다.

1백여 各級任員이 참석한 가운데 崔載九회장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一定基金 적립을 통한 同窓會館건립및 無會費制방안의 일환으로 永久會費制를 채택하였는데, 永久會費는 終身會費로서 同門1人當 3만원以上씩으로 확정하고, 上限額을 정하지 않았으며 任員·各級單位別로 擴大실시해 나가기로했다.

이어 同門들의 호응도가 날로 높아져 가고있는 年會費는 各種物價上昇및 東友會報제작비 大幅引上에의거, 同門1人當 年2천원에서 3천원으로 引上하자는데 異議없이 通過시켰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今年에도 單位組織의 擴大强化및 未발굴 會員찾기 운동에 적극 나서는 한편, 특히 地域單位의 현판달기를 회장단에 위임했다.

이밖에 이날 公知사항으로는 任員수첩제작에 따른 명단제출, 各種會費 협찬안내, 地方동문(全容夏=余州支部)과 昇進동문(尹蓮相=救國女性봉사단사무국장)소개가 있었다.

「한편 同會 2月월례會가 지난18일 俞光震(모교行政大學院학감) 회원宅에서열려 同會발전책을 강구했다.」

禮山郡 창립총회

회장에 朴魯成동문 선출

忠南 禮山郡東友會 창립총회가 지난 1月22日 회원16명이 참석한가운데 禮山邑內 태평식당에서 열려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모교와의 유대강화및 地域社會발전에 기여키로 결의하고 제1대 회장에 朴魯成(49전문·禮山中교감) 동문을 선출했다.

同會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月22日 發起人총회를 가져 任員을 선출, 이날 인준을 받았으며, 이어 獎學基金 조성문제, 사무실 및 현판 유치문제등을 논의한뒤, 상호人事와 여흥의 순서로 東國人의 단결을 과시했다. 신 임원명단은 부회장 朴운우(대술양조장代表) 간사장에 권영달(예산동전교수) 등이다.」

박 회 장

行政大學院 任員인준

新年이사회 事務室마련 論議

行政大學院東友會(회장朴敬熙) 新年 任員會議가 朴會長등 30여명의 임원이참석한가운데 지난1月27日市內 「대림정」에서 열려 任員인준, 경과보고에이어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石주최 체육대회개최, 조직강화방안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廣州郡 신년定總

月會費制등사업계획검토

廣州郡東友會(회장=李光淳) 신년 첫정기총회가 지난 4일(土) 오후4시 廣州面京安里소재 안화식당에서 회원 20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려 77년 결산보고 및新年사업계획을논의했다.

洪先基(광주도예사代表)간사장 사회로 열린 이날 총회는 ①회원회비를 1인 1개월분 1천원으로 결정하고 ②任員團에서 未參席 會員의 가정방문을통해 참여의식을 고조시키며, ③오는 6月에 열리는 廣州郡內學士體育大會에서 同會가 우승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하기로 결의했다.

이밖에 同會연락사무실을 임시로 동부面소재 남한中高교장실(회장사무실·TEL신장13번)로 정하고, 조직의 活性化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福祉基金 조성

救農東友會 自立策으로

救農東友會(회장尹天泳) 임시총회가 지난18일(土) 오후5시 경기도始興郡果川面소재 영보수녀원에서 40여명의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회원상호간의 友誼증진을위한 여흥으로 즐거운시간을 보냈다.

金鍾植동문이기증

事務局책걸상一組

金鍾植(70政外·二室地質사장) 동문이 本會사무국 備品으로 冊床및 걸상 1組를 기증했다.」

두금회 任員개선

會長에 李世茂동문

62年 國文科卒業同期모임인 두금회(회장 李喆鎬)의 정기총회가 작년12月26日열려 회장에 李世茂(등창실업社長)、부회장에 金乘萬(엔젤피아노사代表)、간사장 趙錫英(MBC연수실아나운서)、간사에 李慶寬(永樂中)동문을 각각선출하고 회원상호간에 우진한 同會 2月월례會가 지난18일 俞光震(모교行政大學院학감) 회원宅에서열려 同會발전책을 강구했다.」

昇進會員 祝賀牌증정

自動車保險 會長에 金昌煥동문

大院 감사실장(局長)동문등11명의 승진동문에게 축하패가 주어졌으며 이어 李會長의 경주지점장 발령에따라 新任會長에 金昌煥(58英文·南大門支店과장)동문을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은 종전대로 留任되었다.

經營學科이사회

恩師송별회등논의

經營學科東友會(회장 趙熙榮) 정기이사회가 지난15일 李英淵(1기)동수석부회장)등 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市內다동 부산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오는 2月末 정년퇴임하는 모교 恩師 車均澤교수 송별회준비 및 회원상호간의 유대강화를 통한 조직擴大방안등을 논의했다.

本報신년編輯會議

林德圭위원有司로

本報 新年 첫 편집회의가 지난 14日(火) 平市內 朝鮮호텔20층 「月宮」에서 林德圭(60法·月刊英文「外交」발행인) 위원을 有司로 연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2호의 편집계획수립과, 今年度 本報 편집방향등에 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東友提言

훈훈하게 녹이고 개선

남산충택에 봄기운이돌면 해마다 산아래로 꿈많은 청년들이 흘러내린다.

大學門을 나서는 이들은 養魚場에서 벗어난 魚群같아서 회심의 미소를 짓기도하고 당황하기도 한다. 새롭게 강요된 秩序앞에서 야무지게 도전해야하는 다급한 입장이다.

다 자란 몸집으로 江이든 바다이든 개울이든 뛰어들어야할 판국에 제정신을 똑바로해야한다.

어리둥절하다가 時流에 운명을 맡긴채 남의 손에 이리끌리고 저리팽개쳐지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해서는 큰일이다.

社會라는 新秩序는 흔히들 냉혹한현실로 받아들인다. 쉴새없이 달라져가는 社會가치를 외면할때 항상 현실은 냉혹하게마련이다.

그것을 해나가야 하는것이 大學을나서는 新도들의 절박한 課題다. 大學에서 익힌 敎科目으로 就職을 하고 既成人들의 못된 文化에 빠져들어 쉽게 익숙해지는것은 젊은사람에겐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길들여진 짐승처럼 고삐잡은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밥그랑을 기계적으로 왕복한대서야 되겠는가, 能率이라는 이름아래 酷使당하기를 간청하며 『社會란 그런것이다』는 선배들의 귓속말에 맹종해서야 되겠는가?

돈과 權力이 出世로 代辯되는 이런 狀況에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겐 힘이필요하다. 大學에서얻어진 有形無形의 재산을 정비하고 그것을 밑천으로 삼아 새출발을 해야한다. 우리는 社會라는 거대한 艦隊를 끌고 나갈 船員이다. 우리에겐 날들이 航路. 잘못잡힌 進路를 알면서도 航速을 늦추지않는 기관사는 크나큰 과오를 범하고 만다. 어떻게든 올바른 코스로 배의 갈길을 수정하도록 여기에 능력을 집중해야 마땅하다.

東大를 나서는 우리에겐 날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지도 모르나 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지도 모르나 이것은 결코 돈이나 權力으로 形像化되지않는 佛陀의 정신이다. 모든것을 포용하여 淨化할수있는 큰 힘을 헛되이 할수가없다.

試驗에 合格을하고 운동경기에 이기는 것이 궁극의 목표일수가 없는것은 자기가 속한 배의 航路를 우리만의 소중한 힘이있다. 그것은 돈이나 權力으로 形像化되지않는 佛陀의 정신이다. 모든것을 포용하여 淨化할수있는 큰 힘을 헛되이 할수가없다.

大學을 방금 졸업한 사람은 누구나 구역질나는 일을 보편 찮게 겪는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는 크나큰 위험에 빠지는것이 흠이다.

大學을 졸업하는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보낸다.

스스로를 保全發展시켜나가야

鄭南基 (68·經濟·合同通信編輯部)

맞추고 일시적으로 得勢하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는 크나큰 위험에 빠지는것이 흠이다.

大學을 방금 졸업한 사람은 누구나 구역질나는 일을 보편 찮게 겪는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는 크나큰 위험에 빠지는것이 흠이다.



◇鄭 同 門

昇進會員 祝賀牌증정

自動車保險 會長에 金昌煥동문



金 회 장

大院 감사실장(局長)동문등11명의 승진동문에게 축하패가 주어졌으며 이어 李會長의 경주지점장 발령에따라 新任會長에 金昌煥(58英文·南大門支店과장)동문을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은 종전대로 留任되었다.

經營學科이사회

恩師송별회등논의

經營學科東友會(회장 趙熙榮) 정기이사회가 지난15일 李英淵(1기)동수석부회장)등 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市內다동 부산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오는 2月末 정년퇴임하는 모교 恩師 車均澤교수 송별회준비 및 회원상호간의 유대강화를 통한 조직擴大방안등을 논의했다.

本報신년編輯會議

林德圭위원有司로

本報 新年 첫 편집회의가 지난 14日(火) 平市內 朝鮮호텔20층 「月宮」에서 林德圭(60法·月刊英文「外交」발행인) 위원을 有司로 연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2호의 편집계획수립과, 今年度 本報 편집방향등에 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獎學會명칭등 구체적協議

本會와 母校側代表者間

東國70周年紀念獎學會(가칭) 발기준비위원회가 지난 10日 오전11시 自動車保險사장실에서 本會側대표로 朴恩會부회장(自保사장)·金東正(변호사)및 尹天泳사무국장(金遺腹부회장은 委任)과 母校側대표로 南部泳사범대학장 閔丙天기획실장이 會同한가운데 열려 회칙심의등 발족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장학회창립에따른 명칭을 「東國70周年紀念獎學會」로, 회칙은全文6章21條로, 基金총액을5천만원線으로 한다는등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하는한편, 회원총회에서의 경과보고및 임시의장 선출문제등 한국자동차보험東友會(회장=李種祿)임시총회겸 昇進同門 祝賀會가 지난21일(火) 오후6시30분 시내 초대회장 曺圭植(60經·仁川支店차장)동장안집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禮山郡 창립총회

회장에 朴魯成동문 선출

忠南 禮山郡東友會 창립총회가 지난 1月22日 회원16명이 참석한가운데 禮山邑內 태평식당에서 열려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모교와의 유대강화및 地域社會발전에 기여키로 결의하고 제1대 회장에 朴魯成(49전문·禮山中교감) 동문을 선출했다.

同會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月22日 發起人총회를 가져 任員을 선출, 이날 인준을 받았으며, 이어 獎學基金 조성문제, 사무실 및 현판 유치문제등을 논의한뒤, 상호人事와 여흥의 순서로 東國人의 단결을 과시했다. 신 임원명단은 부회장 朴운우(대술양조장代表) 간사장에 권영달(예산동전교수) 등이다.」

박 회 장

行政大學院 任員인준

新年이사회 事務室마련 論議

行政大學院東友會(회장朴敬熙) 新年 任員會議가 朴會長등 30여명의 임원이참석한가운데 지난1月27日市內 「대림정」에서 열려 任員인준, 경과보고에이어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石주최 체육대회개최, 조직강화방안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廣州郡 신년定總

月會費制등사업계획검토

廣州郡東友會(회장=李光淳) 신년 첫정기총회가 지난 4일(土) 오후4시 廣州面京安里소재 안화식당에서 회원 20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려 77년 결산보고 및新年사업계획을논의했다.

洪先基(광주도예사代表)간사장 사회로 열린 이날 총회는 ①회원회비를 1인 1개월분 1천원으로 결정하고 ②任員團에서 未參席 會員의 가정방문을통해 참여의식을 고조시키며, ③오는 6月에 열리는 廣州郡內學士體育大會에서 同會가 우승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하기로 결의했다.

이밖에 同會연락사무실을 임시로 동부面소재 남한中高교장실(회장사무실·TEL신장13번)로 정하고, 조직의 活性化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福祉基金 조성

救農東友會 自立策으로

救農東友會(회장尹天泳) 임시총회가 지난18일(土) 오후5시 경기도始興郡果川面소재 영보수녀원에서 40여명의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회원상호간의 友誼증진을위한 여흥으로 즐거운시간을 보냈다.

金鍾植동문이기증

事務局책걸상一組

金鍾植(70政外·二室地質사장) 동문이 本會사무국 備品으로 冊床및 걸상 1組를 기증했다.」

두금회 任員개선

會長에 李世茂동문

62年 國文科卒業同期모임인 두금회(회장 李喆鎬)의 정기총회가 작년12月26日열려 회장에 李世茂(등창실업社長)、부회장에 金乘萬(엔젤피아노사代表)、간사장 趙錫英(MBC연수실아나운서)、간사에 李慶寬(永樂中)동문을 각각선출하고 회원상호간에 우진

東青會(회장 朴忠一) 신년하례회가 지난1월21일오후5시 서울거주會員 숙員이 부부동반한 가운데 朴會長宅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自體基金적립으로 會員相互間의우의를 보다 증진시키기로결의하고 在美회원인 金仁圭(올림픽스電子유육支社長)동문에게는 서신으로 자주 同會소식을알려주기로했다.

東青會賀禮會

全員참석코 新年사업 토의

에관해 논의하고 회원총회日字만 추후 결정토록했다.

昇進會員 祝賀牌증정

自動車保險 會長에 金昌煥동문

大院 감사실장(局長)동문등11명의 승진동문에게 축하패가 주어졌으며 이어 李會長의 경주지점장 발령에따라 新任會長에 金昌煥(58英文·南大門支店과장)동문을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은 종전대로 留任되었다.

經營學科이사회

恩師송별회등논의

經營學科東友會(회장 趙熙榮) 정기이사회가 지난15일 李英淵(1기)동수석부회장)등 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市內다동 부산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오는 2月末 정년퇴임하는 모교 恩師 車均澤교수 송별회준비 및 회원상호간의 유대강화를 통한 조직擴大방안등을 논의했다.

本報신년編輯會議

林德圭위원有司로

本報 新年 첫 편집회의가 지난 14日(火) 平市內 朝鮮호텔20층 「月宮」에서 林德圭(60法·月刊英文「外交」발행인) 위원을 有司로 연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2호의 편집계획수립과, 今年度 本報 편집방향등에 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獎學會명칭등 구체적協議

本會와 母校側代表者間

東國70周年紀念獎學會(가칭) 발기준비위원회가 지난 10日 오전11시 自動車保險사장실에서 本會側대표로 朴恩會부회장(自保사장)·金東正(변호사)및 尹天泳사무국장(金遺腹부회장은 委任)과 母校側대표로 南部泳사범대학장 閔丙天기획실장이 會同한가운데 열려 회칙심의등 발족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장학회창립에따른 명칭을 「東國70周年紀念獎學會」로, 회칙은全文6章21條로, 基金총액을5천만원線으로 한다는등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하는한편, 회원총회에서의 경과보고및 임시의장 선출문제등

한국자동차보험東友會(회장=李種祿)임시총회겸 昇進同門 祝賀會가 지난21일(火) 오후6시30분 시내 초대회장 曺圭植(60經·仁川支店차장)동장안집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禮山郡 창립총회

회장에 朴魯成동문 선출

忠南 禮山郡東友會 창립총회가 지난 1月22日 회원16명이 참석한가운데 禮山邑內 태평식당에서 열려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모교와의 유대강화및 地域社會발전에 기여키로 결의하고 제1대 회장에 朴魯成(49전문·禮山中교감) 동문을 선출했다.

同會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月22日 發起人총회를 가져 任員을 선출, 이날 인준을 받았으며, 이어 獎學基金 조성문제, 사무실 및 현판 유치문제등을 논의한뒤, 상호人事와 여흥의 순서로 東國人의 단결을 과시했다. 신 임원명단은 부회장 朴운우(대술양조장代表) 간사장에 권영달(예산동전교수) 등이다.」

박 회 장

行政大學院 任員인준

新年이사회 事務室마련 論議

行政大學院東友會(회장朴敬熙) 新年 任員會議가 朴會長등 30여명의 임원이참석한가운데 지난1月27日市內 「대림정」에서 열려 任員인준, 경과보고에이어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石주최 체육대회개최, 조직강화방안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廣州郡 신년定總

月會費制등사업계획검토

廣州郡東友會(회장=李光淳) 신년 첫정기총회가 지난 4일(土) 오후4시 廣州面京安里소재 안화식당에서 회원 20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려 77년 결산보고 및新年사업계획을논의했다.

洪先基(광주도예사代表)간사장 사회로 열린 이날 총회는 ①회원회비를 1인 1개월분 1천원으로 결정하고 ②任員團에서 未參席 會員의 가정방문을통해 참여의식을 고조시키며, ③오는 6月에 열리는 廣州郡內學士體育大會에서 同會가 우승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하기로 결의했다.

이밖에 同會연락사무실을 임시로 동부面소재 남한中高교장실(회장사무실·TEL신장13번)로 정하고, 조직의 活性化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福祉基金 조성

救農東友會 自立策으로

救農東友會(회장尹天泳) 임시총회가 지난18일(土) 오후5시 경기도始興郡果川面소재 영보수녀원에서 40여명의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회원상호간의 友誼증진을위한 여흥으로 즐거운시간을 보냈다.

金鍾植동문이기증

事務局책걸상一組

金鍾植(70政外·二室地質사장) 동문이 本會사무국 備品으로 冊床및 걸상 1組를 기증했다.」

두금회 任員개선

會長에 李世茂동문

62年 國文科卒業同期모임인 두금회(회장 李喆鎬)의 정기총회가 작년12月26日열려 회장에 李世茂(등창실업社長)、부회장에 金乘萬(엔젤피아노사代表)、간사장 趙錫英(MBC연수실아나운서)、간사에 李慶寬(永樂中)동문을 각각선출하고 회원상호간에 우진

金營會臨時總會

成百幸同門宅서

金營會(會長=李九永) 1월 월례회가 지난27일, 會員10명이 참석한 가운데 成百幸동문댁에서 열렸다.

浦項製鐵신년총회

朴聖勳동문宅서

浦項製鐵東友會(회장=金潤生) 신년총회겸 朴聖勳동문(73驛行) 결혼축하모임이 지난17일 朴同門宅에서 개최되었다. 화기애애하게 열려 東國人相互間의 따뜻한 友情을 나누었다.

勤勞獎學舍임총

成용길박사祝賀會

勤勞獎學舍東友會(회장=李鍾燮) 임시총회가 美유타大學에서 재료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成용吉(64·化學)동문축하회를 결해 지난22일(水) 오후6시 市內 부산회관에서 회원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梁柱東박사一周忌

龍仁墓地서추도식

故先涯 梁柱東(前모교敎授)박사 1周忌 追悼 茶禮式이 지난2月4日 京畿道所在 龍仁公園墓地에서 未亡人 呂順玉女史와 親知및 모교 李丙疇·李東林·金長好·金東俊교수등 50여명의 門下生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茶禮式은 焚香再拜·獻酌·獻花에이어 母校 金長好교수의 追悼辭및 飮福의 順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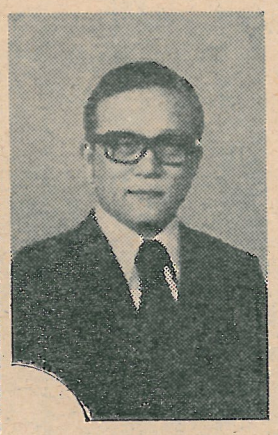
한편 先涯先生의 學德을 기리는 1주기 追悼기념학술강연회가 오는 5월 「東國祝典」을 前後해서 별도로 베풀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추도기념문집은 「東岳語文學會에서 「東岳語文論集」 제11集을 特輯號로 발간하여 發刊하기로 했다.

金義宗이사別世

在學時總會長등

本會理事 金義宗(舊名 金實65 農經)동문이 지난 1月25日 오전6시25분 不義의 事故로 유명을 달리했다. 향년 38세.

서울江南高速버스터미날(株) 代表理事 金遺腹 동문



國土 動脈의 실장인 서울 江南高速버스터미날주식회사의 新任社長에 就任 (77年11月) 한 金遺腹 (51政·本會부회장) 同門ㅣ

首都圈의 交通難해소책으로 고속버스터미날이 江南으로 移轉됨에따라 지난76년8月 서울江南高速버스터미날 株式會社가 정식發足된이래 그 역할이 철도보다 중대시되고있다。

『무엇보다도 安全運行意識을 확고히함으로써 市民들의 명랑한 여행분위기조성에 힘쓰겠다』는 金同門의 각오ㅣ 多年간 버스운행업계에 적용함으로써 金同門의 탁월한 指導力의 再現을볼 것같다。

現 강남터미날의 짧은沿革이 代辯하듯 아직 터미날의 施設및運營體制가 정상과도에 이르지못해 각종 事故및 써어비스 개선등의 事業이 미진한 상태。

하루 왕복 2천3백20회의 出入자량과 명절10만, 평일 4~5만의 승객을 現在시설로는 감당할수없어 명년말까지 1천3백여평에 지하1층、지상7층의 湖南行 터미날을 따로 완공할계획이다。대지도 현재 3만평에서 추변으로부터 2만평을 흡수、현재 총10개회사의 1천1백49대의 자량에 단계적 增車계획에따른 자량의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뿐만아니라 터미날을 들고 나는 시민들의 市內교통편의를 위해 연계교통수단인 터미날 택시制를 금년중에 실시하게되는데 1차로 1백대、2차로 1천대를 배차할 계획으로있다。

한편 현재 1천2백평의 대합실을 3천평의 現代式 대합실로 改築하여 각지방별 特産物 판매시설로 완비할 예정으로 있다。

터미날의 면모를 一新한 후에는 高速버스의 增車、서어비스改善、차량사고를 비롯한 각종사고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서울 陸上關門 사령탑의 주인공인 金同門은 과거 서울병무청장、30사단장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市在鄕軍人會長、印尼協會長、學校法人 東國學院監事、本會부회장직을 맡고있다。

一서비스 개선과 各種事故방지에 最善一

1日최고 流通人口 10萬名 터미날 택시制 年內실시

식과 경험을 안전하고 일사분란한 고속버스운행指針



朴恩會 (60英文·本會부회장) 동문이 한국자동차보험(주) 사장에서 大韓재保險(株) 社長으로 榮轉되었다。

大韓재保險公社가 韓國保險公社와 大韓재保險(株)로 분리됨과 동시에 재보험(株)사장으로 발탁된 朴同門은 이미 保險界에서는 拔群의 實力者로 잘 알려져있는데 國內損保金을 國際시장으로 운용하는데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

東아시아保險會議 (EAIC) 副議長이자 組織委員長이기도한 朴同門은 해병大領예편、大韓保證保險사장등을 지냈으며 현재 成均館大서 保險學강의도 맡고 있다。

大韓再保險 社長에 영전 自保社長지낸保險界실력자

朴恩會
<大韓再保險(株)代表理事>

忠南道副知事에 榮轉 金在淵 (忠南道副知事)

金在淵 (70行院) 동문이 忠南副知事로 榮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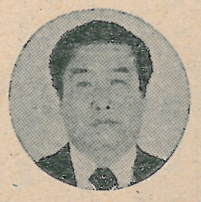
金同門은 治安局 경무과장、忠北副知事、仁川市長、國防大學院 入校및 內務部民防衛局長등을 역임해왔다。

大檢特別搜査部長에 컴백 작년엔5·16民族賞受賞도



申沃
<特別搜査部長>

韓國聯合廣告상무 이사취임 京鄕新聞 編輯局長등 지내



崔致根
<(주)한국연합광고 常務理事>

崔致根 (52國文) 동문이 지난14일 韓國聯合廣告(株) 常務理事에 취임했다。

崔同門은 (주) 文化放送·京鄕新聞 編輯局長 同연구실장등을 역임했으며、本會理事、東國言論人會長、本報편집위원등 본회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共和黨慶北連絡室長 취임 辛達善 (共和黨慶北연락실)

辛達善 (69行院) 동문이 民主共和黨慶北道連絡室長으로 榮轉되었다。

辛동문은 共和黨事務總長보좌역을 역임하고 本會이사로있다。

감리교神學大學 事務處長에 李昌根 (감리교神學大)

李昌根 (51政) 동문이 감리교神學大學사무처장에 昇進되었다。

李同門은 同 大學 교무과장등을 지냈다。

裡里補線事務所長에 영전 金甲鍾 (裡里補線事務所)

金甲鍾 (52) 동문이 鐵道廳 裡里보선사

共和黨마포 용산委員長취임 東洋프라스틱 工業등 經營 朴勝辰 (東洋精密工業(주) 大河社長)



朴勝辰 (61經濟) 동문이 民主共和黨서울特別市 제6지당인 麻浦·龍山地區黨委員長에 취임했다。

朴同門은 현재 東洋프라스틱工業과 大河精密工業 (주) 의대표이사로있기도하다。

永登浦驛長으로 榮轉 李璨濬 (永登浦驛長)

李璨濬 (53法) 동문이 철도청水原驛長에서 永登浦驛長으로 영전되었다。

한국화장품 大田支店長전임 元台淵 (한국화장품 大田支店長)

元台淵 (66經營) 동문이 한국화장품 광주지점장에서 大田支店長으로전임되었다。

泰宇動物藥品을 설립 梁承祐 (泰宇動物藥品주사장)

梁承祐 (舊名ㅣ承哲·61法) 동문이 動物藥品專門메이커 泰宇動物藥品株式會社를 설립하고 同代表理事에 취임했다。

梁同門은 (株)이몽 專務理事職을 辭任한뒤、지난15일 既存 動物藥品會社인 (株)

救國女性奉仕團사무국장에 共和黨京畿道婦女部長역임 蓮相 (救國女性奉仕團)



있다는 것。

수필가이기도한 李同門은 성북구청 자문위원、本會이사등 활약이 크다。

L·C貿易株式會社 設立 李在喆 〈L·C貿易사장〉

李在喆 (67經) 동문이 L·C貿易株式會社를 설립코 同代表理事에 취임했다。

在學時 奬學生會長을 지낸바있는 李同門은 무역회사인 (주) 대니문通商 총무부장과 理事등을 역임한바 있다。

三元化學工業社 設立 白種秀 〈三元化學 社長〉

白種秀 (67 應生) 동문이 PVC골름및 水藥츄브 메이커 三元化學工業社를 設立코 同社長에 취임했다。

白同門은 宇一化學 (주) 영업부장등으로 활약한바 있다。

鮮進企業 상무이사에 昇進 建設·鐵鋼系統서 뼈굵어



黃慶鎬
<(주)鮮進企業 常務理事>

黃慶鎬 (68經營) 동문이 鮮進企業 (주) 상무이사로 승진했다。

黃同門은 그동안 鮮進企業·鮮進建設·鮮進鐵鋼의 총무부장으로 활약해왔다。

三源企業商社를 개점 金在澤 (仁川支部고문)

金在澤 (49·專門) 동문이 지난1月20日 三源企業商社를 개점、운영하고 있다。

三源企業은 방열안품및 소방기구와 민

祝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特別市
市長 具滋春

企劃管理官 金璨會
內務局長 李雨榮
保健社會局長 全潤枸
江南區廳長 李泳植
冠岳區廳長 姜炳壽
西大門區廳長 李泳和

辯護士 宋基成
중구을지로2가16314 (일진빌딩305호)
TEL 776-4551

辯護士 愼京勳
중구태평로2가367-1
TEL ㉘3424

辯護士 黃石淵
중구서소문동50-10 (三鈴빌딩11층)
TEL ㉒2266

辯護士 金東正
중구태평로2가360-1 (광학빌딩15층)
TEL ㉓5660

辯護士 宋鎭承
중구태평로2가366 (오천회관302)
TEL ㉓2332

辯護士 李康郁
부산서구동대신동3가13-33
TEL 부산㉒6320

西獨거주 東國人들의 近況

在西獨 東國人들의 近況이 지난해 12月27日 「본」大學 經濟및 交通問題研究協會 초청으로 獨逸을 訪問한 經商大學長 錢昌源 (57經) 동문에 의해 파악되어왔다。

錢학장에 따르면 現在 獨逸에서 활약중인 同門은 30여명정도로 事業 또는 留學등 모든 同門이 安定된 생활을 하고있다고 전해왔다。

특히 지난 1월 중순에는 西獨東國人모임 준비위원회를 가진바 있는데、이 자리에는 1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同門들를 나누며、學窓과 近況、母校이야기로 시간가는줄 몰랐다는 것。

이자리에서 동문들은 獨逸東友會모임을 구라파까지 擴大시키겠다고 약속하고、이제 母校도 國際水準의 大學으로 비약할수 있도록 姉妹關係 수립에도 앞장설것을 다짐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同門들은 이젠 美國·日本등지 留學에서 구라파쪽留學도 많이 권장하고 싶다고 傳하고、獨逸東友會가 발족되는대로 母校발전과 同門相互間의 친목강화를 위해 유익한 사업을 구상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현재파악되고 있는 獨逸거주 東國人의 近況이다。

▲최창기 (56法) ‖57年 渡獨하여 현재 함브르크市에서 巨大한 留易業을 하고있다。

▲李濟一 (60化學) ‖함브르크市에서무역업을 하고 있으며、주소는 2000 Hamburg26Normannenweg12。

▲권영목 (62史學) ‖아헨大學에서 博士學位 과정중이며、주소는 473Ahlen/Westf,Gludcaufplatz1-9。

▲金仁培 (64英文) ‖쾌르大學에서 醫察行政學博士학위과정중이며、주소는 5 Koln41, Marsilusstr37。

▲徐明子 (64國文) ‖쾌른大學을 卒業했으며 夫君과 함께 모임에 同席하고 있으며、주소는 Lindenthalgurtel 23、5000Koln41

▲趙熙榮 (63經營) ‖본大學서 經濟學博士학위 취득、귀국하여 모교에 재직중。

▲李完熙 (64經濟) ‖독일 바이엘藥品本社 과장으로 근무중이며、獨逸東友會 발족에 노력이 크다。주소는 Merheimer str.4200 5000Koln80

▲車壽連 (68經營) ‖아데나워재단초청으로 쾌른大學서 經營學博士학위과정중이며、주소는Laxemburger str.118 5000Koln41

▲白京男 (65政外) 뮌헨大學에서 政治學박사학위 취득。

▲邊光義 (71食工) ‖본大學에서 박사학위과정중이며 주소는 Auf dem Hugel16、53Bonn

▲柳德基 (80農濟) ‖民俗土産品판매업을 하고 있으며、주소는Rhondorfer str96、5000Koln41 W-Germany。

(註‖인쇄사정상 주소의 「울라우트」가 생략되었으니 차질없기 바람。)



◇錢學長 (앞줄앉은사람) 과 함께포즈를취한 西獨同門들。

韓沃甲（65大院）동문이 大檢察廳 公安部長에서 同特別捜査部長으로 전임되었다。

1년만에 다시 捜査部長으로 컴백한 韓同門은 人革黨사건과 좌익재소자 전향작업 공로로 지난해에는 5·16民族賞 安保部門 本賞까지 수상한바있다。韓同門은 47년 釜山地檢사이래 各地檢部長검사및 檢事長·高檢검사·大務部治安局長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大韓배드민턴協會長、日曜畫家會長등을 맡고있으며 법조인회 명예회장、本會이사로도 활약이크다。

大韓保證保險副社長영전

朱 璟 孝〈大韓保證保險(주)〉

朱璟孝（71行院）동문이 大韓保證保險(주)副社長에 榮進되었다。

朱同門은 그간 韓國火災保險協會 監事로 활약해왔으며 재무부서기관및 한국조폐공사理事를 거쳤다。



미네소타大 초청으로 渡美

全南大총장으로 크게활약

閔 俊 植〈全南大學校總長〉

閔俊植（51經濟·全南大學校總長）동문이 美미네소타大學 초청으로 同大學과 全南大間의 姉妹結緣서명을 위해 지난8日渡美했다。

閔同門은 同大學과의 學生·教授교환및 學術情報교환등 구체적이 사항을 합의한 다음、그곳 大學의 운영실태등을 시찰하고 25일 귀국할 예정이다。

閔同門은 全南大商大教授、同商大學長을 거쳐 지난74년11월 同大學校총장에 취임



水原支廳 部長檢事로 전임

法務部 研修院副院長등역임

朴 柱 寅〈水原支廳長·서울地檢部長檢事〉

朴柱寅（59法）동문이 水原地檢部長檢事로 전임되었다。

朴同門은 서울·木浦·順天·光州地檢을 거쳐 서울高檢검사겸 法務部研修院부원장을 지냈으며 法曹人會 2대회장및 本會이사로 활약하고있다。

大成毛紡附設中高設立등 분망

柳 周 馨〈大成毛紡工業사장〉

柳周馨（57農）大成毛紡工業사장）동문은 上級學校에 進學하지못한 同社산하 女중업원들을 위한 同社附設 女中高校를 설립코 오는 3월10일 개교식을 갖게 된다。

在學時 학도호국단 총 운영위원장겸 농림대위원장을 지낸 柳同門은 忠南紡績 전무이사、青話商社사장등 同系列의 간부직을 역임했으며 農學科東友會長을맡고있다。

日本 醫藥品市場 시찰

李 宗 鎬〈大韓中外製藥사장〉

李宗鎬（58法·大韓中外製藥（株）사장）동문은 약2주일간 日本醫藥品市場을 돌아보고 지난 19일 귀국했다。



北서울青年會議所회장 취임

合同결혼식등 地域발전앞장

李 喆 鎬〈유명漢院院長〉

李喆鎬（62國文·유명한의원院長）동문이 JCI 北서울青年會議所 제8대會長에취임했다。

리더쉽개발、세계와의 友情、地域社會개발을 모토로 하고있는 JCI의 北서울지회장 취임과함께 李同門은 대한노인회 성북지부 결성、성북구관내 합동결혼식주선등에 앞장서고 있으며、앞으로 예능경진대회를 통해 서울지부내 13개 새마을학교학생에 대한 장학금지급도 추진중에 있다。

全校首席卒業者 曺 明 心양



77學年度 母校 首席卒業의 영예는 平均91·82點을 획득한 佛教大 印度哲學科의 曺明心양이 차지했다。

韓國에서는 有一無二한學科인 印哲科는「참 人間教育」을 指標로하고 있어서 大學生活을 대부분 冊과 圖書館과 自身을「매친」하는데 애썼다는 曺양은 하지만首席은 생각조차 해보지않은 영광으로서 그것도 日刊紙를 본 高校은사가 알아주어 알았다는 것。

련서적과 긴밀히 사귐으로서「갭」을 해소할수 있었다고 한다。

曺양은 醫藥에도 뛰어난 才質이 있어 2學年때는佛教合唱團의 一員으로 MBC 合唱競演에서 母校가金賞을 차지하는데 수훈을세우기도。

집에서는 부친 曺希在（現漢陽工高 工藝科長）씨의 稀貴한 學問이어서 뜻있는 學友를 구하기 힘들어 學問世界에 대한 포괄적意思交換에 많은 불편을 느꼈지만 도서관의 풍부한관

원칠한키에 美貌의 學究派

印哲科 창설이래의 첫慶事

—꿈 가 者仕奉育教，學留에 大리델—

『항상、能力껏 行하라』는 家訓과 오빠 曺哲秀（現이스라엘히브리大）씨의 격려가 좋은 촉매가 되었으며 徐景洙（現네루대 韓國語科）教授의 學問적 影響을 많이 받았다고。

學者로서 보다는 맡겨느리감이 어려 適格이라는주위의 評이 말해주듯 원칠한 키에 미모를 겸한 曺양의성격은 意外로「中性」이라는 別名과함께 돼활하기만。

또 한명의 學生만있어도 난방시설을 가동하는 모대학에비해 모교의 도서관시설이나 학교의 배려는 너무 빈약하다』고 學校當局의 行政에 一針을가한다。

후배들에게 남겨주고 싶은말은『오로지 人間됨은學問에 先行되어야한다』고。

『印度철학은 역시印度가 서研究해야하지 않겠느냐』고말한 曺양은 印度의「델리」大에 留學、碩士과정을 이수한다음 印度철학이 本格的으로 研究되고있는 英國으로가서 博士과정을 밟은후 장차教育奉仕者가 되는게 曺양의 꿈이다。

美유타大學서博士학위취득

高分子生體재료등을 연구

成 용 길〈釜山大學校助敎授〉



成용길（64化學）동문이 지난해 12月22일 美國유타大學校에서 재료공학博士학위를 받고 同大學 研究員으로 在職하다가 귀국했다。학위논문은「Interaction of Water With Hydrophilic Methacrylate Polymers」。

成同門은 특히 美NIH（國立保健研究院）의 연구비 지원으로 새로운 研究分野인 高分子 生體재료및 Biomaterials에 대한 연구를 지난 75년以來 계속해왔다。

64年 母校卒業時 首席을 차지해 총장상을 받기도한 成同門은 68년 모교大學院 석사학위、69년~71년 KIST연구원 71年~現在 釜山大助教授、75年 釜山大서理學博士학위를 받았으며 國內및 國際學會 잡지에 20여편의 論文을 發表하기도했다。

自動車整備組合 理事長에

池 泰 河〈서울自動車整備組合〉

池泰河（73經營）동문이 서울特別市 自動車整備事業組合 總務部次長으로。

秋炳福（65·英文）‖仁川水産業協同組合 총무부장에서 총무및 지도담당、상무로 승진

榮進·轉補

▲趙漢晟（49專門）‖國民銀 반포지점장에서 同東豆川支店長으로。

▲李鍾範（60法）‖國民銀 楊平洞지점장에서 同水原支店長으로。

▲黃龍雲（54經）‖韓一銀 明洞支店長에서 同小公洞支店長으로。

▲李種祿（63經）‖韓國自保 東大門支店영업과장에서 慶州支店長으로 昇進。

▲曺圭植（61經·학국자동차보험 인천지점）‖同社2급에서 1급승진。

▲고원석（75大院·韓國自動車保險감사실次長）‖同社2급에서 1급승진。

▲최윤호（60經·韓國自動車保險大邱支총영업과장）‖同社3급에서 2급승진。

▲오태갑（61政·자동차보험동대문지점）‖4급에서 3급승진。

▲이동진（68統計·자동차보험 보상지도부）‖〃

▲오영일（66·商·자동차보험 성남지점）‖〃

▲이규성（72食品·자동차보험 보상지도부）‖〃

▲지낙운（56·經濟·자동차보험 김천지점）‖〃

▲김상완（農學·자동차보험대구지점）‖〃

▲李光儀（60法）‖영등포경찰서 정보1과장에서 中部경찰서 情報2과장으로。

▲金洛賢（62法）‖城北경찰서 경무과장에서 市警작전과 作戰계장으로。

▲蔣昌福（57法）‖노량진경찰서경비과장에서 城北경찰서 경무과장으로。

▲崔範敦（61國文）‖清州師大 國語教育科助教授에 부임。

▲鄭國立（61政治）‖國民銀行청량리지점次長에서 本店업무부 조사역으로。

▲鄭孟鎭（65經營）‖新東亞火災保險(주) 영업부과장에서 同영업부차장으로 승진。

▲金潤生（60法）‖浦項製鐵 원료부次長에서 總務部次長으로。

榮轉

尹瀅相（75行院）동문이 社團法人 救國女性奉仕團 사무국장에 취임했다。

在學時 行政大學院학생회장을 지낸 바있는 尹同門은 그동안 民主共和黨 京畿연락실 부녀부장으로 활약해왔다。

三寶地質 代表理事로 활약

金鍾植〈三寶地質（株）代表理事〉

金鍾植（70政外）동문이 地下개발과 基盤地質조사 전담업체인 三寶地質(주)의 代表理事에 취임했다。

同社는 온천조사및 개발、그라우덩、각종지구물리탐사、관광조사등 地質에 관한 다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東海生命 南部營業所長에

宋 榮〈東海生命保險南部營業所〉

宋榮（70經營）동문이 東海生命保險(株)南部營業所長으로 榮進되었다。

林昌實業 代表理事에 就任

曺 廷 海〈林昌實業代表理事〉

曺廷海（70經營）동문이 捕蟲器專門메이커(주)林昌實業 代表理事에 취임했다。

自然保護운동에도 크게 기여하게될 捕蟲器는 실용신안특허를 받아 市販중이며 曺同門은 茶洞에서 釜山회관（음식점）도 경영하고 있다。

東西證券여의도支店長 영전

尹 得 洙〈東西證券〉

尹得洙（71經）동문이 東西證券영업부次長에서 同여의도支店長으로 榮轉되었다。

在學時 代議員會의장을 지낸 尹同門은 그동안 韓一銀行에 在職하다가 지난해 同社로 자리를 옮긴바 있으며、71년 經濟科東友會長을 맡고 있다。

뭔헨大學서 政治學博士취득

日本와세다大서 碩士사학위

白 京 男〈政治學博士〉



白京男（65政外）동문이 지난해 12月西獨 뮌헨大學에서「韓日國交正常化」란 論文으로 政治學博士학위를 받고、지난 2月 초순 귀국했다。

72년 日本와세다大學에서「韓國女性의政治意識」이란 論文으로 碩士학위를 받은뒤 그해 渡獨留學한 白同門은 留學前에는 社團法人 女性問題研究會 연구간사 東京한국학원중고등부 교사등으로 활약한바있다。

新宇洋行으로부터 動物藥品에 관한 一切의 영업권을 引受받아 同社를 設立코 生産作業에 착수했다。

大韓出版文化協 理事선임

尹 炯 斗〈汎友社사장〉

尹炯斗（63法·汎友社사장）동문이 지난 1月25日 大韓出版文化協會 78年度（제31차）정기총회에서 同協會 理事로 선임되었다。

農協 學園事務局次長昇進

許 良 道〈農協學園事務局〉

許良道（64法）동문이 農協中央會 교육과장에서 同학원사무국次長으로 昇進되었다。

許同門은 農協東友會長을 맡고있다。

동우회보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東友會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慶

大地合同會計事務所

종로구관철동43（방협빌딩8·9층）
TEL ⑫5551 ⑭3347 ⑫1309

代表會計士 閔 宇 庚
公認會計士 尹 泰 俊
〃 秋 昱 九
〃 李 軒 敎
〃 黃 龍 浩
〃 林 洛 鼎
〃 任 成 彬

韓善合同會計事務所

중구태평로2가69—5 삼정빌딩3층·6층
TEL ㉓2011 ㉔2356

代表會計士 朴 忠 煥
公認會計士 金 福 男
〃 沈 賢 植
〃 徐 健 錫
〃 金 弘 模
〃 金 柱 禹
〃 申 在 興
〃 梁 在 興

産經會計法人

중구양동286（대우빌딩11층11호）
TEL ㉒7011~3

代表會計士 尹 鍾 安
公認會計士 金 基 煥

二和會計法人

중구태평로2가70—5（해남빌딩718호）
TEL ㉓7884 ㉒2587

公認會計士 鄭 炳 熙

졸업수필

未完成作品에도 보람이



洪大郭

동악의언덕을 오르내린지가 벌써 4년이 다되었나보다。가만히 뒤를돌아볼때 희미하게 때론 생생하게 학교생활이 나의 머리에 부각되어 올라 못사람들은 대학생활을 인생의 황금시대라고들하지만 난 남들처럼 순조롭지못한 여건속에서 대학생활을 지냈기때문에 하고자하는 일들을 다하지못한채 캠퍼스를 떠나게 된것같아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대학생활은 미완성 작품인지도 모른다。물론 아쉬움이 남는건 인지상정이라고 하지만 처음 대학캠퍼스 문을 두드릴때의 나의 初志가 채곡채곡 팔삶되어 잔것은 무한한 가능성과 보람을 찾기 위해 남못지 않게 힘껏 뛴대도 후회없을 만족하게 보냈다고 자신있게 대답할수있는 사람이 과연 몇명쯤 될까? 시행착오속에서 사람은 성장하여간다고 생각할때 진리와 낭만으로 뒤엮힌 대학생활은 그대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될것같다。

나의 대학생활의 이정표가 된 것은 그래도 학도호국단 잔부생활이였다고 할까? 다만 짧은기간이였지만 나에겐 얻은것이 너무나 많은것같았다。

단체 생활을 통한 멤버쉽트레이닝、또 방학땐 봉사지역을 찾아다니며 우리학우들이 땀 흘리며 봉사하는 장면을 본것도 흐뭇했다。

선 얻는것보다 잃은것이 많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아마 그래도 얻은것이 많은것 같다。내가 만일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낭만과 멋을 충분히 즐기라고 말하고 싶고 후회없는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글쎄 그게 지내놓고 보면 아쉬움의 계속이니 이런일이 언제까지나 계속 될는지…。이제 며칠 있으면 정들었던 교직원님들과 떠나야 되고、또 학우들과 캠퍼스를 떠나야되나보다 이제 교문을 나서면 각자의 생활전선으로 뛰어 들겠지…。나의 자신을 위해서 또 동국을 위해서 사회로 향한 거보를 힘껏 내디딜련다。

〈警察行政科卒業·有元鎭設(주)海外事業部〉

筆隨業卒

이제 卒業을해야한다。선배들이나 친구들의 卒業을 祝賀해주던 내가 이번에는 祝賀를 받아야한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4年동안 정들었던 곳을 떠나야하는것이 卒業이기에 祝賀를 받기보다는 함께 서러워해줄 사람이 있었으면하는 나의 바램은 지나친 억지일런지도 모르겠다。

나의 大學生活을 총명이라도해 주는듯한 大學時節의 사전을 한장 한장 整理하며 깊은 생각에 빠지기도하고 혼자 웃기도 하는 버릇이 요즘와서 생겼다。따뜻한 봄날 깜빡 졸다 깼을때 마주치는 敎授님의 시선에 고개를 떨구어야만했던 부끄러움、도서차람 증을 꽉 채우지못한 후회스러움、大運動場에서의 축구·달리기。나의 가슴을 메우고 있는 이모든 것들을 하나의 追憶으로 간직한채 나는 이곳을 떠나야만한다。

오늘의 이한걸음을…

떠나야한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지금의 내가 1학년이라면、아니 2학년、3학년이라도 좋겠다고 바라는것은 아직도 어린탓이리라。

모두를 故鄕으로、安息處로 돌아가버린、유난히도 바람이센 겨울의 캠퍼스에서 나는 그동안무엇을 배웠는가? 삭막하게만 느껴지던 겨울의 校庭에서 다른때와는 달리 따뜻함을 느낄수있었던것은 무엇때문일까?

『꾀꼬리 울고 꽃이 우거져 山과 골이 아름다워도 이 모두다 乾坤 한때의 幻境이라 마르고나뭇잎 떨어져 바위틈 벼랑이 앙상하게 드러남이 곧 天地의 참 모습이다。』라고 한 말의 참뜻을 이제와서 새삼스레 알았단말인가。이제 만남과 헤어짐의 連續속에서 수많은 先輩들이 밟았던 校庭을 내가 밟고 또 나의 後輩들에게 몰려주고 社會라는 보다큰 바다로 떠나게 됐다。십여년간 지냈던 學生이라는 身分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엿한 社會人으로서 出發하게된 것이다。

하나의 競技는 끝났다。마지막 코오스에 가서 운전하는 기술을 더잘배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이제는 다만 어떻게 退場할것인가를 생각하면 된다。

다음에 있을 경기에 對備해서 몸과 마음을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다。

며칠후면 東岳에서의 겨울放學도 끝이난다。내년 이맘때쯤이면 또 다른곳에서 차가운 겨울放學을 맞이하게 되리라。그러나 내 마음 속에 자리잡은 東岳의 겨울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것이다。

자!오늘부터 새신을 신었다고 생각하자。지금 내딛는 한걸음이 나를 키우고 東國을 키우는 길이다。

東國人이여!오늘의 이한걸음을

〈國文科卒業·송악중敎師〉

後輩들에게 몰려주고 社會라는 보다큰 바다로 떠나게 됐다。십여년간 지냈던 學生이라는 身分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엿한 社會人으로서 出發하게된 것이다。

하나의 競技는 끝났다。마지막 코오스에 가서 운전하는 기술을 더잘배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이제는 다만 어떻게 退場할것인가를 생각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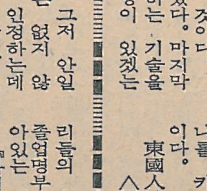
다음에 있을 경기에 對備해서 몸과 마음을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다。

며칠후면 東岳에서의 겨울放學도 끝이난다。내년 이맘때쯤이면 또 다른곳에서 차가운 겨울放學을 맞이하게 되리라。그러나 내 마음 속에 자리잡은 東岳의 겨울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것이다。

자!오늘부터 새신을 신었다고 생각하자。지금 내딛는 한걸음이 나를 키우고 東國을 키우는 길이다。

東國人이여!오늘의 이한걸음을

〈國文科卒業·송악중敎師〉



李明淑



沈敎俊

7년전 이른봄 東岳과의 새로운 인연을 맺었던 입학식 그날의 기억을 저쪽에 두고 이제 성큼 卒業이 왔다。

그러나 우리들의 卒業은 그저 떠나야만하는 者가 보내는 者에게는 의식에 참석하는 그런날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者가 새길을 시작하고 남아있는 者가 새 문을 열어주는 그런날이 될 것이다。

입학—입대—복학—졸업으로 이어지는 나의 대학생활은 언제나 은혜로운 손길의 연속이였다。

우정어린 학우들이며 校內外에 계신 敎授님들의 숨결과 발자국이 그리고 졸업명부에는 우리들의 이름이 남아있는 것이다。

『봄이 되면 회색의 소중한 풀밭이 초록으로 변하는데 이것은 수백만의 새싹이 풀뿌리에서 새로이 움터나오기 때문이다。』이와같이、思考의 革新이라는、우리들의 세대에 할 일도 많은 사람들이 生의 意味와 意味를 골들이 생각함으로써 자신들의 指向과 理想을 새로이 形成하는 수밖에는 이것을 성취할 길이 없다』라는 슈바이쳐의 말을 마지막으로 기억해 본다。

〈경영학과卒業(주)金星社販促課〉

은혜로운 손길의 연속

沈敎俊

찬으로 얼버무리거나、그저 안일에만 만족할 수 만은 없지 않은가?오늘을 그대로 인정하는데서 내일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오늘 졸업식은 비록 갖지만 우리들은 東國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교정에는 우리의 位置가 어디인가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할 때이리라。자화자찬은 금물이다。

나는 이 斷想의 末尾에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바는 東大의 한 同門인 것만도 영광인데 崔載九 同窓會長님과 李瑄根總長님이「東國人의밤」行事를 기하여 致賀의 패를내려 주시니 고마움을、표할길이 없다。

戊午新禧를 맞아 東大의 歷史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感謝의뜻을 전한다。

〈51·史學〉

榮進·轉輔

▲柳博仁(63經濟)=浦項製鐵 제품총괄과장에서 검사역실課長으로。▲신경식(78經營)=浦項製鐵에 入社。▲강홍원=한국화재보험협회서 현대건설(주)로。▲朴俊喜(60經)=水協中央會 새마을부 次長에서 同軍納部次長으로。▲金忠男(72 行院경찰대학교관)=지난 1월15일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孫德熙(67 警行·경감)=인천시에위치한 205 전투경찰대장으로 부임。▲金鍾男(76 警行·경위)=인천동부경찰서 외근계장으로 부임。

移轉·開業

▲崔璇九(52國)=國會議員사무실을 영등포구여의도동 의원회관 4동501호로 이전。(☎783-1311)▲黃明秀(53政)=의원회관 1동302호로 이전。(☎787-7306)▲金殷夏(52政)=의원회관 5동507호로 이전。(☎787-7137)▲金鎭福(52政)=의원회관 1동303호로 이전。(☎787-7603)▲金東英(60政)=의원회관 4동506호로 이전。(☎783-8316)▲崔炯佑(63政)=의원회관 2동206호로 이전。(☎725-6256)▲安鍾烈(69行院)=의원회관 3동405호로 이전。(☎775-7759)▲李廷植(前모교수)=의원회관 1동201호로 이전。(☎651-8518)▲李成龍(60經)=강남구잠실2동 주공APT505로 이사。▲韓錫初(64·商)=강남구잠실동 주공APT513동101호로 이사。▲印興植(65·國)=강남구 잠실동주공APT525동304호로 이사。▲趙廷來(66·國)=강남구 잠실동주공APT507동409호로 이사(422-3247)。▲姜東燁(68·國)=강남구 잠실2동 고층아파트520동706호로 이사。▲鄭求鴻(68 行院·관세사)=인천시중구신생동18에서 관세사 사무실을 운영。▲李吉柱(74 經濟)=인천시중구신흥동에있는「뉴반도」고고클럽을 운영。▲申泰夏(63·경제·고려해운(주) 인천사무소차장)=인천시중구사동9의1로 사무실을이전。▲홍충권=잠실2동고층아파트520동706호로 이사。▲김형성(61·經)=잠실2동 고층아파트502동、1308호로 이사。▲선우진(59·經)=잠실2동 고층아파트507동 1506호로 이사。▲許順五(69行政)=관악구봉천동100-407호로 이사。

結婚

▲林亨根(75法·第一銀行외국부)=1月19日1시 행복예식장에서 모교 吳國根교수主禮로。▲李栽根(73經·효성物産철강과)=3月5日1시30분 신혼예식장본관4층서화촉。▲朴聖勳(73警行·浦項製鐵제품과)=1月3日 全州서 화촉。▲張慶珉(72·電子工·모교外國語 교육원)=1月22日 세종호텔해금강홀에서화촉。▲朴聖昊(모교譯經院업무부장)=1月21日 長女결혼。▲李容稙(64農·현대농악사)=2月4日 오후3시 이화예식장에서 화촉。

社告

東友會報 記者募集

모교在學生 男女약간명

東國大學校 五萬同門들의 紙上廣場이 되어온「東友會報」에서는 아래와 같이 大學生 記者를 모집하오니 많은 應募바랍니다。

아 래

一、募集人員=약간명
一、應募資格=東國大學校 男女大學生
一、提出書類=①이력서 1통 ②前학년성적증명서 1통
一、提出期間=一九七八年2月27日~3月1日
一、試驗科目=論文·常識
一、提出處=本會사무국(도서관전물1층)
※新聞·雜誌편집有經驗者는 특히 환영함
※其他 자세하것은 本會사무국(27-8568、또는 구내 297번으로 문의바람

一九七八年 二月二十一日

東國大學校同窓會事務局

想斷友東

<韓國文化의 方向>

文化의 體質



趙香祿 <慶熙大學神學大學院>

韓國文化는 體質文化다。原始巫俗宗敎로 體質化된 한국인은 佛敎와 儒敎를 받아들여서도 그것을 자기 속에 溶解시켜 主的體으로 體質化시켜 버렸다。그래서 한 宗敎的民族이 되었다。佛敎에 있어서 禪宗이 한국佛敎의 大宗을 이루게된 것도 이러한 民族의 體質性에 緣由한것 같이 생각된다。最近에들어온 기독교도 그 歷史的 과정속에서보이는 바는 거의 같은 樣相이다。그래서 한국에서는 宗敎들간에 투쟁이나 갈등같은 것은 별로 없어도 특이한 한국인의 體質을 보인다。오히려 더 親近感을 갖게 된다。나는 기독교 목사로서 佛敎宗團경영의 大學에서 修學하게된 것을 퍽 多幸하게생각하고 자랑한다。바로 그 當時 즉 解放以後는 서울大學에서 左翼勢力의 분규가심해 상처투성이였을 때다。

나는 본래 史學을 공부할 결심이 었는데、當時 史學界의 거의 大部分의 교수님들—이병도·김상기·김성식·민영규등 그리고 가람 이병기·양주동·박종홍등—이 東大에 집결되어 있어서 나는 東國大史學科를 찾은 것이다。나는 日帝시대에 專門학교교육을 받을때 金東華선생님의 佛敎講義를 들은일이 있었다。

어쩌면 그때도 퍽 親近感을 가졌다。佛敎는 이미 文化的으로 불릴때 佛敎人의 佛敎만이 아니라 韓國人의 文化的 體質이다。그리고 그것은 宗團이나 宗派의 敎條、戒律로서가 아니라 人間의 궁극적 眞理와 普遍的 道理로서의 삶의 倫理的 基調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한 外來宗敎가 特定한 民族속에 들어가 그 民族文化의 資料가 되기까지는 그 宗敎가 지닌 眞理의 根源性 如何에도 달려있지만 그것을 受容하는 民族의 기존體質에 더욱 영향되는 바가크다。韓國人은 모든 世界的 高級宗敎를 받아들여서 自己속에 體質化시키는데 天才的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그것은 韓國人이 이미 지니고 있는 體質文化가 인간의 根源的 倫理性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때문이다。그러므로 韓國人은 人類의 精神史的 맥락속에서 새로운 歷史의 章을 여는 先導的 使命을 다할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는 이 斷想의 末尾에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바는 東大의 한 同門인 것만도 영광인데 崔載九 同窓會長님과 李瑄根總長님이「東國人의밤」行事를 기하여 致賀의 패를내려 주시니 고마움을、표할길이 없다。

戊午新禧를 맞아 東大의 歷史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感謝의뜻을 전한다。

〈51·史學〉

平均競爭率 2·2대 1

首席合格에 趙成鳳 (養正高) 군

新入生選拔試驗 끝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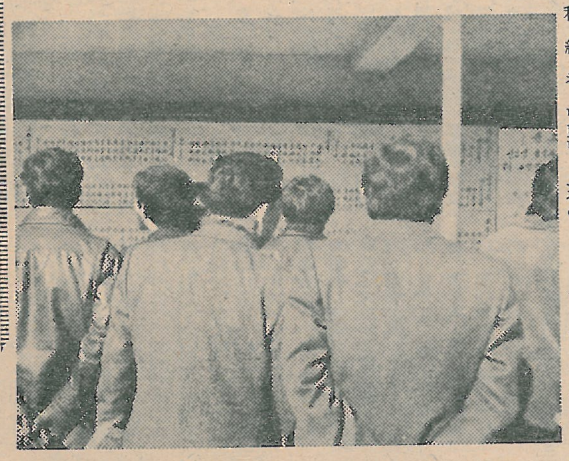
母校의 1978學年度 新入生選拔試驗이 지난9、10양일간에걸쳐 실시되었다。이번 入試合格者는 지난17일 발표되었는데、經商大 經濟學科를 지원한 趙成鳳 (養正高卒) 군이 6백40점 만점에 5백29점을 얻어 영예의 首席合格을 차지했다。

이번 入試에서는 44개學科 總1천3백10명 모집에 2천8백44명이 應試、평균 2·2대1의 경쟁율을보여 昨年의 3·5대1에 비해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다。(別表) 經商大會計學科는30명모집에 1백26명이지원4·2대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入學式은 오는3월 6일 오전11시부터 體育館에서 거행될 예정이며 신체검사 일정은 7일부터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중에 교양학부에서 공고할 예정이다。

各大學別 首席合格者는다음과같다。

◇全體首席=經商大經濟學科 趙成鳳 (養正高)

▲佛教大學=哲學科 尹用男 (大田高) ▲文理科大學=英文科 金華中 (全州高) ▲法政大學=法學科 金東雨 (서울고) ▲經商大學=經濟學科 趙成鳳 (養正高) ▲農林大學=農經科 李庚燁 (大新高) ▲工科大學=電子科 李太石 (全州高) ▲師範大學=教育學科 宣鎭奭 (南岡高) ▲2部大學=工經科 由相仁 (鎔山高)



78年度 入試競爭率

學	科	定員	지원자	
佛教大	불철인미승	20	32	1·6
	교학학술가	20	36	1·8
	도철	20	34	1·7
		30	52	1·6
		20	21	1·1
文理大	국영영	30	67	2·2
	어어국	30	84	2·8
	문문학화학	20	32	2·6
	국영사연수문화통	20	55	2·8
		30	39	2·1·3
		30	42	1·1·4
	리계	30	36	1·1·2
		30	43	1·1·4
法政大	법정행경도	25	60	2·4
		25	83	3·5
	외치학행정	25	67	2·7
		30	93	3·1
	찰시	40	84	2·1
經商大	경무경전회	35	69	2·0
		35	73	2·1
	제역영계	40	81	2·0
		40	95	2·4
	계	30	126	2·4·2
農林大	농임농농	25	51	2·0
		25	41	1·6
	학학제물	30	49	2·6
		20	52	2·6
工學大	경생업	40	83	2·1·6
	공공공공공공경	30	78	2·6·7
	자기목속학풀업	40	109	2·8·4
		30	111	2·2·2
	전전토전화식공	35	73	2·1·6
		25	74	2·6
			67	2·6
師範大	교국사국체가수	30	61	2·0
	육교교교교교교	30	54	2·0·8
	어회사육정학	30	46	1·1·5
		30	62	1·2·6
	육육육육육육육	30	78	2·2·3
		25	70	2·2·0
			49	2·0
二部大	산영학	30	82	2·7
	계계	30	53	1·8
	자업계	40	96	2·4·2
	전공회			2·2
合	計	1,310	2,844	

體育部、활발한 움직임

복싱의 黃哲淳·金貞喆군好調

球技종목은 放學中 轉地訓練

母校 體育活動이 黃哲淳 (경행·2) 金貞喆 (경행·2) 金奭熙(家教·2) 등 個人종목에서 활발한 활약과 球技部들의 78년도 씨즌에 對備한 합숙 및 전지훈련등으로 常勝東國 겨냥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제8회 아시아 아마복싱에서 北韓의 정조응을 물리치고 우승한 黃哲淳선수는 그 공로로 大韓體育會의 77년도 最優秀선수로 선정되고、文敎部제정 대한민국 체육상 후보자로 추천되었다。

몬트리얼 올림픽 복싱 韓國代表였던 金貞喆 (警行·2) 君은 지난 19일 끝난 세계선수권대회및 아시아경기대회 출전선수 7차선발대회에서 우승했다。

金君은 그간의 슬럼프를 딛고 이번대회에서 총5게임중 4게임을 KO와 RSC、1게임을 기권승을 거두었다。

또한 스피드스케이팅의 金暎熙선수는 공인기록회 1천5백m동을 휩쓸어 再起의 可能性을 보여주었으며 金洽 (體敎·3) 선수도 회장기쟁탈대회 5백m에서 우승했다。

한편 野球部는 新任 裵星瑞감독을 사령탑으로 유망주 金城漢 (群山商卒) 군등으로 투수진을 대폭 보강하여 지난 2월14일부터 20일일정으로 光州에서 전지훈련중이며 축구부 (감독‖이영율) 는 鎭海에서 1월11일부터 31일까지 농구부 (감독‖주봉산) 는 母校 體育館에서 각각 전지및합숙훈련을 가진바있다。

새로 스카웃된 27명 (야구=12 축구=9 농구=6) 도 참가하여 하루6시간이상의 强訓으로 기초체력과 個人技연마도 금년시즌오픈에 만전을 기하고있다。

韓國文化講座 大學院서 3개월간

母校 大學院 (院長‖張庚鶴博士) 에서는 外國人을위한 韓國文化講座를 오는3月16日부터 6月15日까지 3個月간 實施한다。

國際文化交流를 目的으로 東西文化의 體系的인 比較學的方法을 통해 韓國外國人을 대상으로 進行될 이 講座는 鄭寅燮 (國際펜클럽아시아大學 번역국會長) 博士가 英語로 강의하게되며 이번대회에서 총5게임중 4게임을 KO와 RSC、1게임을 기권승을 거두었다。

또한 스피드스케이팅의 金暎熙선수는 공인기록회 1천5백m동을 휩쓸어 再起의 可能性을 보여주었으며 金洽 (體敎·3) 선수도 회장기쟁탈대회 5백m에서 우승했다。

한편 野球部는 新任 裵星瑞감독을 사령탑으로 유망주 金城漢 (群山商卒) 군등으로 투수진을 대폭 보강하여 지난 2월14일부터 20일일정으로 光州에서 전지훈련중이며 축구부 (감독‖이영율) 는 鎭海에서 1월11일부터 31일까지 농구부 (감독‖주봉산) 는 母校 體育館에서 각각 전지및합숙훈련을 가진바있다。

새로 스카웃된 27명 (야구=12 축구=9 농구=6) 도 참가하여 하루6시간이상의 强訓으로 기초체력과 個人技연마도 금년시즌오픈에 만전을 기하고있다。

본大學 「交通問題研究協會」와 자매결연

經商大學 學術·人的교류약정서 交換

母교 經商大學은 작년 12月27日 錢昌源학장이 西獨·본大學을 방문하여 同大學 經濟및 交通問題研究協會 (회장‖포크트博士) 와學術및 人的協力등에 관한 姉妹約定을 맺음으로써 앞으로 兩者間에 東西文化交流및 人的交流의 발판을 구축했다。

이 約定書에 따르면 兩機關은 學술및 人的協力의 ①경제과학·商學·交通과학및 개발정책분야의 학술연구과제를 합동연구하고 ②양기관 발행학술지및 기타 연구결과 교환 ③교수·조교·학생상호초청하며、또한 해당초청기관 (獨학술교류봉사재단·홈볼트재단·훠르스 게마인샤프트) 에의한 초청가능 협력등을 약정했다。

한편 錢學長은 韓獨間經濟協力 세미나에서 研究論文을 발표한후 EC국가인 오스트리아·이태리·스위스·佛등을 순방 「EC國의非關稅장벽」에 관한 많은資料를 수집후 귀국했다。

洪又·車均澤교수정년退任

後進養成에 至大한 貢獻

母校 經商大學의 洪又(經濟科)教授、車均澤 (經營科) 教授가 停年退職한다。

洪又·車均澤양 教授는 각각 1964年과 1955年부터 母校에 부임、後進養成에 힘써왔으며 母校發展에도 지대한 공헌을했다。

◇洪又教授=1913年忠南 公州生、▲41年 東京立教大 經濟學部卒、▲46年商大 經商大 副教授、▲47年 연희대학 商學科 教授、▲55年 서울大 商科 教授、▲64年 以來 母校 經商大 教授、▲64年~1966年母校 經商大學長。

▲車均澤 教授=1913年平北 신의주生、▲42年 東京 明治大 商學部卒、▲45年 北京 燕京大學 商學部 修了、▲61年 母校經濟科 修了、▲48年 弘益大講師、▲55年 母校 講師、▲58年 母校 副教授、▲66年 母校 教授。

登錄金 15%引上

新入生 최고 35만2천여원

母校는 78학년도 제1학기 登錄金을 전반적으로15% 인상하는 한편 經理課에서는 同學期 등록기간을 新入生은 20·21日、在學生은 27·28日 양일간씩 확정、공고했다。

신입생 등록금은 최고35만2천6백50원 (工大一部) 에서 최저 32만8천5백50원 (佛教大·文理大一部) 이다。또한 在學生 등록금은 최고25만3백50원 (工大·農大 一部) 에서 최저 22만4천1백원 (佛教大·文理大一部) 수준이다。

許衛경영대학원장 유럽등지산업시찰

母校 許衛(經營大學院長) 博士가 지난12月13日 유럽및 中東의 産業시찰차 出國、독일·영국·사우디아라비아를 경유 1月20日 歸國。

出版文化賞제작상 佛教撰述문헌總錄

母校 出版部 (部長‖金鎬鎭) 는 昨年에 펴낸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으로 제18회 韓國出版文化賞 (한국일보사제정) 製作賞을 받았다。

母校 佛教文化硏究所 (所長‖洪庭植박사) 에서 편찬한 이總錄은 佛教관계 文獻·資料를 수집、체계적으로 정리한것으로 종래 목록서들의 오류를시정、佛教學者의 지침서가되고있다。

全南支部 1月모임

新舊理事歡送겸해

全南支部東友會 (회장‖鄭根謨) 1月이사회가 지난1月27日 16명의 任員이 참석한가운데 趙三奎 (55·經濟·光州西區廳長) 동문을 有司로 光州市內 동호식당에서 열렸다。

元台淵 (66經營·한국화장품大田支店長) 동문의 환송회및 金龍鉉 (光州文化放送 업부부장) 동문의 신임理事 영회의를겸한 이날 모임은 同會 신년도사업전반에관해 논의한다음、연회를 베풀어 임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했다。

全榮華교수 歸國

예술가세미나참석

母校 全榮華 (佛大·美術科) 教授가 지난해 12月5日부터 인도 뉴우델리에서 開催된 제7차 국제미술전및 제1회 국제예술가 세미나에 한국대표로 참가했다。또한 데헤란·파리·브뤼셀등 구라파 미술계를見學、시찰하고 지난1月17日 歸國。



금년 首席入學 趙成鳳군

父親이어 經濟學者되고파

78學年度 母校 新入生 이라며 首席의 소감을말한다。

入學試驗에서 首席合格의 榮光은 經商大學 經濟學科를 志望한 趙成鳳군에게 안겨졌다。經商大 趙昌華교수의 次男이기도한 趙군은 장쾌한 흉련 데 고야마는 每事에대한 생각이 뛰어서 아버님의 後輩가 활태도를 들춘다。

되었다。 東岳은 父親이 在職하 首席을 『이왕 들어가려면 고 있어서 몇차례와 본 하라』는 아버님 의 격려에대한 보답일뿐 의 권유에 따라 碩士나 博 육경력에 따라 碩士나 博士學位를 위한 2學點을취득할 수 있으며 希望에따라 그 證明書를 發行한다。 大學院 教學課에서는 오는 3月6日부터 15日까지 受講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수강료는 2萬원이다。

책소개

近代中國民族運動史 硏究 —孫文의 反淸革命과 會黨

鄭世鉉 (淑大교수) 동문著

鄭世鉉 (淑明女大교수) 동문著 『近代中國民族運動史硏究—孫文의 反淸革命과 會黨』가 새로 나왔다。中國의 近代化過程을 孫文을 主役으로한 反淸革命과 會黨의 關係發展을 主內容으로 역은 本著는 中國近代史에 관한 勞作으로서 當界의 주목을 받고 있다。이 冊은 政治 軍事 兩面에서 孫文個人에 觀한 고찰과 關係論文을 수록 反淸革命에 있어서 그 근거와 발전과정을 會黨과 결부시켜 해석하고 있다。

〈一志社刊·454P·4천5백원〉

한편 鄭同門은 지난해 12月30日 援護處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에서 刊行하는 獨立運動史 第9卷 (學生獨立運動史編) 을 집필하기도 했다。(총9백86P)

經濟學概論 최대부피 槪說書

朱宗桓 (모교敎授) 著

經濟學概論으로서는 國內最大의 부피로서 총1천2백70면에 經濟史로부터 先進國經濟와 韓國經濟에 이르기까지 全分野를 세밀하게 커버하고있다。

또한 線型計劃法、게임의理論、시스템理論등 最新의 經濟學 世界를 平易하게 說明하고 있으며 韓國經濟學의 새로운 體系수립을위한 理論的배경을 서술하고있다。특히 各種 受驗準備生은 물론初學者가 쉽게 볼수있는內容을 수록하고있다。

〈一潮閣刊·1천2백70면 5천5백원〉

詩集 보름달

朴晨燮 (城東女實高) 동문著

「不惑이 넘어 詩集을낸다하니 어떤面에서는 한 守節한 靑상을 보는듯하고 또한 아울러 四〇代의 純情이란것이 눈에어른거린다」라고 朴在森이 序에서 언급했듯이 朴晨燮 (58·國文) 동문은 現在 城東女實高 敎職에있으면서 특히 古典에대한 眞摯性에서 古典詩의 形象을 찾고 密着된 生活感情을바탕으로한 詩등 50수로엮어 처녀시집을 냈다。

〈대광문화사·7백원〉

開校 70주년기념 奬學基金 납부자

2차분 10만원

農協東友會 (회장許良道) 는 장학기금으로 지난해 4月12日 1차분10만원을 납부한데 이어 2차분 10만원을 지난 1月31日 許會長이 本會로 직접 납부했다。

◇既署名者納付額

▲崔仁 (68商·美濟商社) ‖3만원 ▲咸燁成 (68行院·牧陽경영) ‖2만원

나무와 더불어 자라나는 국민의 기업

鮮昌産業株式會社

●선·퍼니처 / 건장합판 제조원

考試指導委員會

作년엔 司試 3、行試 6명 合格의 好調보여

考試準備生 저변擴大 시급

合格率 提高에 總力戰 펴야

◇考試班 育成의 制度的 意義

李瑄根총장은 각종 國家考試및 體育活動에 있어서 「常勝東國建設」의 각오를 천명하고, 70年 東國史의 轉機마련에 역점을 둔 考試指導委員會를 75년9월에 新設함으로써 그具體的인 制度的 方案을 모색했다.

考試指導委員會는 法政大學長을 委員長으로 한 指導教授 2名, 行政大學院長, 經商大學長, 그의 各 處長, 企劃室長및 교수2명으로 구성된 지도위원을 포함, 총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같은 제도는 각종國家考試의 合格率 向上에 第一目標를 두고 校內의 勉學風土 造成을 副次的 課題로 부여하고 있다.

◇考試班員 선발 및 혜택

考試班에는 東大學部·大學院生이면 學科·學年을 不問하고 入班對象이 될 수 있다. 선발방법은 主客觀式問題의 전형으로서 國家考試 應試適格與否를 테스트하는데 司法·外務·行政考試의 一次試驗合格者에 限해서는 선발시험의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現在 人員을 應試希望 者別로 보면 司試16、行試12、外試1、技術考試1 未分類의 1學年 17名을 포함, 총47名이다.

考試班員에대한 學校當局의 特惠로는 考試奬學規則 第6條1·2·3項에 의거하여 國家考試2次合格者에게 授業料·기성회비전액면제, 1次合格者및 考試班선발시험 優秀者에게 授業料 全額면제, 선발시험합격자에게 授業料 半額면제의 惠擇을 주고있다.

또한 2次 合格者에게는 總長격려금과 同窓會및 學徒護國團 祝賀牌가 주어진다.

◇指導方法과 成果

考試班은 圖書館 特別열람실을 이용하고있으며 校內外의 特別講師를 초빙, 最近 問題傾向에 準한 特講과 論文作成要領을 授業하고있다. 또한 이곳에는 금년부터 考試班 專用圖書를 多量 구입 비치하여 受驗準備生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있으며 同門 國會議員 8명(崔載九 金膨夏 金鎭福 黃明秀 金東英 崔炯祐 安鍾烈 李廷植)이 책장과기타 도서비품을 기증한바 있으며, 在京 法曹人會(회장=黃石淵)에서도 各種 試驗關聯도서의 提供을 약속하고있어서 母校 동 총56名의 1次合格者를 냈으며, 그중 司試3 行試6등 9名이 2次試驗에 合格하는 높은실적을올렸다.

이와같은 實績은 考試班의 2년의 短期年輪을 감안할때 意外의 好成績으로 評價할수 있겠다. 그러나 開校이래 合格者를 살펴보면 司法고시29 行政고시11, 外務고시1명 등 겨우40여명에 불과하고있어 부끄러운일이 아닐수없다.

◇問題點및補完策

現代戰을 情報戰이라고 하듯이 考試戰도 情報의 重要性은 말할것도 없다. 따라서 첫째 各種試驗情報, 考試班員 動態파악, 國書管理유지를 전담할수있는 요원의 확보가 요망되고있다.

둘째는 考試準備生의 저변확대이다. 他校의경우 S大의 5백여명, K大의3백여명에 비해 母校의法學·行政科정원 50명은再考해볼 必要가있으며 그나마도 고시준비생은 경원에서 고작 10%안팎에 불과한형편이다. 한편 法政大를 제외한 他科에서는 準備生이 극소수이나 지난19회 司法試驗에서佛教大 高永根(佛教·2)군이、행정고시에 朴炳植(經濟科)군이 1차에 合格한것은 他科生의 應試의욕고취에 좋은 자극제가될수 있겠다. 특히 行試는 經商大學커리큐럼과 직결되어있어 他科生의 응시율은 높은 편이다.

셋째 合宿施設의 不備이다. 이 문제는 學生들의 효율적 時間 활용은 물론 충분한 영양관리로써 體力과 정서함양에 있어서도 科學的 運營의 뒷받침이 요구된다.

그 밖에도 試驗에 충분한 합격소지를 갖춘 學生 중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 등에 많은 時間을 할애해야 하는 學生들이 있다. 이런 경우는 財力있는 同門독지가의 배려로 有能한 人才로서의 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考試指導委員會의 78年度 지도방법을 概略해 보면 1차시험 위주의 매월 실력고사와 2차시험의 답안작성요령을 개별지도로써 전천후적 시험대비에 萬全을 기하며 放學期間을 이용, 寺刹에서의 轉地 訓練등으로 體力、情緒面에도 아울러 强化策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有能한 學生의 確保策으로는 高三學生들의 特待生 선발을 계획하고 있다.

75年 考試指導委員會의 創設로 과거의 부진에 일대 쇄신을 기하려는 「東國」의 意慾이 앞으로 얼마만큼 5만 동국인의 與望에 보답하느냐의 관건은 학생들 자신들의 심혈, 학교당국의 열성적 배려, 그리고 法曹界는 물론, 뜻있는 同門들의 후배에 대한 關心이 混然一體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實現이 가능할것으로 본다.

그 現況과 전망



◇崔 요 환위원장



◇李 淳 容지도교수

한 大學의 總體的校勢는 물론이고, 傳統의 명맥유지의 手段은 무엇보다도 그大學의 人的 經濟와 긴밀한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같은 전제는 특히 各大學의 學問的 競合面에 있어서 가장 現實的 問題로서 그大學의全人口를 評價함에 앞서 떳사람의 特出한 人材가 그 學校의 전반적 評價의 「바로미터」로 常用되고있는 實情인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이른바 國家考試중 가히 最高의 關門으로 通하고있는 司法·行政·外務考試를 비롯한 其他 技術考試등의 大學別 合格者 數値는 곧大學 「네임밸류」의 척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現實的 側面에 立却하여 母校는 李瑄根總長의 각별한 配慮에 힘입어 75년 9월 考試指導委員會를 新設、各種 國家考試의 實績向上에 박차를가하고 있다. 創設 2年半에 접어든 考試指導委員會는 짧은 年輪에비해 고무적 成果를 거두고있다는데, 다음은 考試指導委員長인 崔요환 法政大學長과 同지도교수 李淳容 朴瑄浩 敎授와의 對談을통해 그동안의 現況및 實績과 앞으로의 展望내지는 補完策을 알아보기로 한다.

안전한 투자 친절한 봉사
國一證券
서울 중구 명동1가10 ☎(776)9681~5

안과처방조제
(고려병원·김희준안과지정)
고려안경원 문화방송·광화문쪽30m 동문의집·(72)0524

四君子

—故梁柱東박사 一周忌에—

白……南 吉 〈49·전문〉

梅……三冬에
마른
침을 말려붙여
긴 사연을
절구어 놓았더니
호호
입김 불고 피어나는 매화꽃 송이。

蘭……가난한 땀구멍에
씻어 내리는
찬 이슬 찬 구슬알이 구르는
말 말이다。

菊……아내의 구김없는
싱그러운 말이다。
더러는 칼베고 윤기가 뚝뚝
떨어지는 고요가 있다。

竹……가을가고 여름 지나
그리움 하나로
발들메고
서리밭 길十里許에
달빛도 無色해
素服인데
길높이 黃燭臺 밝혀놓고
꽃심지를 돋우나。

속 비고 곧은 情은
마디 놓고 우비나니
사철두고 푸른마음
누가 알리오만
가락없는 가락이나 蒼空에
띄워 보내오리라。

各種會費案內

戊午새해를 맞아 五萬東國人의 幸運과 健勝을 祈願하오며, 지난 한햇동안 公私多忙中 物心兩面으로 協助와 聲援을 아끼지 않으신 同門여러분에게 뜨거운 感謝를 드립니다。

本會는 그동안東國을 아끼고 사랑하는 同門愛에 힘입어 나날이 發展의 面貌를 一新해나가고 있읍니다만、아직도 여러분의 期待에 未洽한 面이 적지않읍니다。

이가운데서도 특히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同窓會는 營利團體가 아니어서 定期的인 收入이 없는 탓으로 오로지 여러분의 참여에 의지하여 활동이 左右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이에 會長團會議(1月11日)와 各級任員연석회의(1月30日)는 同學間의 紐帶를 굳히는 한편、東國人의 密着된 總和力을 中外에과시하기 위한 永久會費制를 채택、사랑의 自體基金을 추렴하기로결의하였읍니다。

永久會費의 目標額은 五千萬원으로서 이 基金은 本會의 權益을 높이기 위한 淨財이온바 삼가 同窓諸位의 熱烈한 精誠을 衷心으로 熱願하는 바입니다。

○……○

永久會費·1人當3만원以上

(上限額은 없으며 적극 후원바랍니다。)

年會費·1人當3、000원

(例年까지2천원에서 금년 2月부터 1人當 年會費를 3천원으로 引上하였아오니 個人別、各級單位別로 倍前의 協助와 참여바랍니다。)

理事會費·理事1人當2만원

(未納하신 理事께서는 未納금액을 빠짐없이 完納바랍니다。)

廣告協贊金·別途로請求

(東友會報發行의 主財源이온바、發行時마다 청구되는 금액을 한결같은東國愛로 倍前의 協贊바랍니다。)

납부방법 : 本會로直接연락 (27) 85 68) 또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대체구좌(번호5 2566 9번)으로 불입 바랍니다

東國大學校同窓會
事務局長 尹 天 泳

年會費 납부자 名單

◇個人納付分
▲권중석(65·國文)=2,000원
▲鄭成圭(57·史)= 〃
▲金鉉植(57·化)= 〃
▲金尙律(49·文)=3,000원
▲權亨道(63·농)= 〃
▲金永晩(77·정)= 〃
▲朴長元(〃)= 〃
▲蔡周燮 (59·法) = 〃
▲田炳祿(55·경)=4,000원

◇단체 납부분
◇韓國 自動車保險
=70,000원(1次分)
▲김창환(58·英)=남대문 지점 과장
▲오태갑(61·政)=동대문 지점 과장
▲이종록(63·경)=경주지점장
▲이명록( )=감사실과장
▲고원석(75·대원)= 〃 차장
▲이현상(76·경원)=남대문 지점과장
▲정성열(77·연영)=기획실
▲정승도(69·상)=전산부 대리
▲김선율(71·물)=전산부
▲김유진(73·무)= 〃
▲장정환(77·미)= 〃
▲박영록(74·경영)=총무과
▲이동진(68·경영)=보상 지도부
▲송병삼(67·상)=보상 사무소
▲이영일(76·경원)= 〃
▲도상집(67·국)= 〃
▲이규성(72·식공)= 〃
▲김용정(65·法)=중부지점
▲석영호(74·경영)= 〃
▲이영진(69·商)= 〃
▲문점용(77·)= 〃
▲강대하)71·경영)=울산지점
▲정하장(69·농학)=안전관리실
▲김영삼(71·化工)=남대문지점
▲박 철(73·경제)= 〃
▲황일창(74·경영)= 〃
▲이홍규(69·경영)=부산지점
▲권태동(72·토목)= 〃
▲이정웅( )= 〃
▲오영일(66·상)=성남사무소
▲조규식(61·경제)=인천지점 차장
▲김종석(65·정치)=춘천지점
▲장철중(57·법)=천안지점 과장
▲경용현(67·상)=천안지점
▲최윤호(60·경제)=대구지점 과장
▲김상완(68·농)=대구지점
▲지낙운(56·경제)=김천지점
▲구종서(56·법)=마산지점 장

理事會費 납부자 名單

▲朴鍾九(65·경영)=20,000원
▲吳明根(65·國文)=40,000원
▲李喆鎬(62·國文)= 〃

廣告料 납부자 名單

▲印丁一(21호)=20,000원
▲尹鎰均(〃)= 〃
▲朴東昊(〃)= 〃
▲金在國(〃)= 〃
▲池載赫(20호)=10,000원
▲孟昶在(〃)= 〃
▲東友會(회장·김유복)=30,000원
▲國會(회장·김동영)= 〃
▲학교법인東國學院(21호)= 〃
▲東國大學校(19호)=100,000원